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辛 在 周

韓 國 教 會 社 會 福 祉 活 動 的 活 性 化
方 案 에 關 한 研 究

A Study on Activition of the Social Welfare Activites
by korean Churches

2002年 8月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朴 元 在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辛 在 周

韓 國 教 會 社 會 福 祉 活 動 의 活 性 化
方 案 에 關 한 研 究

A Study on Activition of the Social Welfare Activites by
Korean Churches

위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2年 8月 日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朴 元 在

朴元在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國文要約)

韓國教會 社會福祉 活動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朴 元 在
社會福祉 專攻
福祉行政 學科
韓 城 大學校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 체계이며 이러한 체계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행위이다. 결국 사회복지의 인간을 창조주의 창조이념에 의해 지은 인간에로의 인간성 회복운동이라는 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교회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교회적 입장과 동일시 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가 교회조직의 근본이념인 성경적 바탕에서 발동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복지활동과 상호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을 살펴봄으로 교회 사회복지활동이 교회 본연의 사명임을 밝히고,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진의 요인을 규명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발표된 선행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목적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으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선교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목회자이며, 목회자의 복지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복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비록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실천의지가 복지의식에 못 미치고 있지만, 복지의식이 높은 목회자가 낮은 목회자보다 사회복지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목회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신학교나 기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실천목회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장 목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내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이다. 교회는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및 시설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손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사회복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사회봉사비를 확충할 뿐 아니라, 교회시설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아울러 인적자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아동복지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구빈적(救貧的)이고 자선적(慈善的) 차원의 사회복지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예방적이고, 광범위한 사회복지활동의 필요하다.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 노인주간보호시설과 호스피스 사업,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활동 등 통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교회중심주의와 교회의 소형화문제이다. 교회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활동이 개별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회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사회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지역중심이나 또는 해당 복지프로그램의 연합을 중심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한다면 교회의 소형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시대적인 요청이나 흐름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이웃사랑의 실천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이제 성경에 나타난 복지사상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을 활용하여 믿음과 행함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개념	4
1.	사회복지의 개념	4
2.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개념	8
3.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특징	13
제2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성서적 근거	16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16
2.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27
제3절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32
1.	초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32
2.	일제치하의 한국교회 사회복지 활동	35
3.	해방후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37
4.	성장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38
제3장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41
제1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	41
1.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의 실태	41

2.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실태 -----	68
제2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 -----	80
1. 목회자의 사회복지실천의지의 결여 -----	80
2. 교회 내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	81
3.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	84
4.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소형화 문제 -----	85
제4장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방안 -----	90
1. 목회자의 사회복지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 -----	90
2. 교회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	93
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	98
4. 지역교회의 연대강화 -----	102
제5장 결 론 -----	106
참고문헌 -----	110
ABSTRACT -----	118

표 목차

[표 1]	목회자의 사회복지 인식 -----	46
[표 2]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	50
[표 3]	목회자의 사회복지 교육·훈련 경험 -----	53
[표 4]	목회자 동료 중 복지관련자와 상호작용정도 -----	56
[표 5]	교회체계 사회복지관련 실태 -----	61
[표 6]	교단체계의 사회복지활동관련 실태 -----	66
[표 7]	지역사회의 사회기관 수와 사회문제 정도 -----	68
[표 8]	설립연수 -----	69
[표 9]	교회의 부대시설 현황 -----	70
[표 10]	기독교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견해 -----	71
[표 11]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이유 -----	71
[표 12]	총재정 중 구제 및 봉사비 비율 -----	73
[표 13]	사회봉사의 어려움 -----	75
[표 14]	사회봉사사업의 분야 -----	75
[표 15]	사회복지 전공자 채용의사 -----	76
[표 16]	교회의 사회봉사에 참여정도 -----	77
[표 17]	교인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	78
[표 18]	빈곤의 원인 -----	79
[표 19]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사회봉사프로그램 실태 -	85
[표 20]	방과 후 교실 및 이용아동 현황 -----	96
[표 21]	교회규모별 사회봉사 프로그램 -----	101

그림 목차

- [그림 1] 교인 및 교단의 이념 정향과
교회사회봉사활동 양식 ----- 63
- [그림 2] 교단 신학과 사회적 태도 ----- 6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기독교의 본질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일차적 목적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에 대한 의무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회봉사는 단순히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2:2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사회복지 활동을, 어느 정도 행하는가 하는 점은 교회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의 한국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했으나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타종교나 일반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어,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은

1) 김명혁(1998),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 규장문화사, p 22.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의 사회복지 활동은 매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사회복지 법인 가운데 67%가 기독교 법인이라는 사실²⁾은 기독교인이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에 나서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1998년 3월 현재, 신도가 운영하는 시설과 미인가 시설을 제외한 한국의 사회복지 법인시설 종교별 운영 현황을 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기독교 53개, 카톨릭 103개, 불교 10개, 원불교 13개, 기타 9개이며, 사회복지관의 경우 기독교 23개, 카톨릭 29개, 불교 24개, 원불교 13개 기타 12개이다. 이러한 수치는 비록 신도가 운영하는 시설과 미인가 시설을 제외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그다지 왕성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³⁾

이와 같은 교회의 사회적 영향 상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교회가 사회복지적 활동을 등한히 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로 연결된 것이다.

또 교회의 영향력 상실은 교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1980년대까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 정체 내지는 퇴보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게 되었다.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목회자는 교회사회복지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⁵⁾ 교회의 활동이나 사업의 방향은 주

2)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 문화부, p.129

3) 조홍식(2001), 「지역사회복지와 교회건물 개방」, 「교회의 사회복지 :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p.12

4) 이성희(1997),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p.248

5) 손인웅(1994), 「지역사회를 통한 교회의 활성화」,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장로

로 목회자의 주관이나 의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회가 교회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사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공적 기여도를 높임으로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첫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이론적인 고찰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개념을 연구하고 신·구약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과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목회자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셋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논문 및 단행본, 관련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실태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조사한 선행자료⁶⁾와 이만식의 책 “교회의 사회봉사-그 실태와 대안-⁷⁾, 그리고 유장춘⁸⁾과 장금석의 논문⁹⁾을 주로 사용하였다.

회출판사, pp.296-303.

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7) 4993교회를 대상으로 1999년 4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하여 이 중 598명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인간의 생활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국가와 학자들에 따라 심지어는 각 개인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하는 견해 때문일 수도 있다.

1) 어원적(語源的)개념

먼저 어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사회(social)’라고 하는 개념과 ‘복지(welfare)’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welfare’는 ‘wel’과 ‘fare’의 복합명사로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social’이란 형용사를 붙이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뜻한다. 웹스터(Webster)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쾌적한 상태, 안녕과 관련된

설문을 분석한 자료이다.

- 8)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장금석(2000),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태,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과 같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복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상생활의 상황, 말하자면 인간이 생활하는 삶의 형태를 의미하고, 안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의(語義)의 배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의 가치적 존재인 한, 행복을 누리며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념이며 생활목표가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감정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요약하면 '복지'는 인간생활의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한정적(限定的) 개념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이 한정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를 일컫는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협의의 파악 방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낙오자'에 두고 그 구제·보호·예방·회복·원조를 행하는 시책과 방법체계로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회적 약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라고 보는 입장이다.¹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개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보

10) 이계탁(1997),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 : 나남출판, p.23

호할 수 없거나 자체내부의 자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문제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반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3) 광의적(廣義的) 개념

최근의 사회복지의 사회발전의 과정 속에서 광의(廣義)나 확대(擴大)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즉 광의의 사회복지의 사회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켄덴(Elizabeth Wickenden)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給付)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윌렌스키(Wilensky)와 레복스(Lebeaux)의 사회복지 2대 개념 중 제도적인 개념이 이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가족이나 사회의 변동, 가치의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통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이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광의적 정의로서 레셔(Rescher)의 복지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11) 장종녀(1998),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2) N. Rescher, *Welfare*, (University of Pittsnurh Press, 1970) p.4

“복지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간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건강), 물리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정신적·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 정신적 위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책의 방법은 여러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는 공공일반시책(공중위생과 의료), 사회정책(사회보험과 고용정책 등), 사회사업(협회의 사회복지)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이해는 광의의 사회보장과 동의어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와 국가의 실정에 따라 그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유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광의의 사회복지란 인류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정신, 인도주의, 또는 생존권의 사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에 공통적인 복지의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라든가, 풍요한 사회라든가,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욕구가 충족된 상태 등 이상사회의 규범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같은 경향을 입증하는 것으로 로마나신(John M. Romanynshin)은 1971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Society Welfare, Charity to Justice*에서 사회복지 개념이

첫째,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慈善)에서 시민권으로

셋째,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넷째,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最適條件)으로
다섯째,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여섯째, 자발성에서 공공성(公共性)으로
일곱째,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이념이 점점 광의 내지 최광의의 경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2.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개념

1) 교회사회복지활동(Diakonia)의 정의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활동 및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의 범위는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병원과 학교에서의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택, 소득보장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기독교가 이러한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할 때 그 근거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님 복지활동(diakonia)이라는 말속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Diagnosis라는 말속에는 생명과 복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범세계적인 초월성을 지니는 뜻이 있다. 또한 예방적 특성을 강조

13) 이계탁(1997),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 : 나남출판, pp.25-26

하며, 구조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차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복지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기에 의해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독일교회의 홀츠아펠(Wilhelm Holzapfel)목사는 그의 글 Diakonie im Kraftfeld Jesu Christi(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의 디아코니아)에서 선교적인 디아코니아 입장에서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디아코니아를 정의했다.

"디아코니는 조용한, 그러나 침묵하지 않는 선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영역 안에 있는 삶의 실행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생겨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중재하려고 한다. 디아코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박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포함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영역 안으로, 즉 개교회에로와 공교회에로의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디아코니의 첫 번째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선교적인 디아코니의 입장). 그래서 디아코니는 선교와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디아코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 디아코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생겨난다. 즉 디아코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형태와 생활실행이다.

2)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예배: Worshipservice)이며, 이웃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봉사(Christian Social Service)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 신학의 영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방향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였으며, 세계교회에도 열정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영성이 있는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자랑하며 성장해 왔다.

한 주간에도 여러 번에 걸친 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 새벽기도 등은 이러한 열성을 나타내기에 즉 하나님 사랑에 정성을 다해 오고 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적 책임과제는 언제나 부차적이며 등한히 여겨지고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교회와 국가 혹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성서적인 바른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별개인 것으로 생각해 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눅10:25-37의 선한 사마리아사람의 비유의 말씀과 마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영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봉사적 책임과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이 바로 섬김의 삶에 있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봉사 혹은 섬김은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우선시 하였고, 또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개인윤리적 과제라고 보았기에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던 신학적 오해와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한국교회의 갱신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의식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원인은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서양에서 왔던 초기선교사들의 신학적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는 영생을 얻는 길이며,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윤리적 책임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영성과 경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¹⁴⁾

3) 하나님의 나라와 디아코니아¹⁵⁾

독일 튀빙엔 대학의 몰트만(J. Moltmann)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 있어서의 디아코니(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라는 책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장으로 보았고, 기독교적인 봉사 즉 디아코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하나님

14) 이승렬(2001), 「교회사회복지론 : 위상과 실천과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편, 「총회사회부 정책협의회 및 사회선교지도자 훈련」, 서울 : 총회사회부, p.11

15) 상계서, p.13

의 나라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봉사는 그저 보상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상이 없는 사랑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단지 요구하고 고발이나 하는 사랑 없는 유토피아가 되고 만다고 하였다. 그래서 봉사적 실천은 사랑을 소망과 관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인 필요와 관련시키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디아코니는 기독교적이라고 규정될 수가 없고 실천과 이론에 있어서 사회복지국가의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디아코니는 기독교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 공동체를 새롭게 갱신하는 근거이자 이를 실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적인 디아코니는 경우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제'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몰트만 교수는 이 책에서 중요한 일곱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시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것은 부자와 건강하고 힘있는 자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사회의 상층부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저 아래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와 더불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들은 기독교적 복지사업이나 자선행위 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며 세계를 심판하시는 인자의 형제인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해 하는 자, 죄진 자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로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몰트만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지평에서의 디아코니는 그래서 구원과 치유 그리고 화해의 실현이 나타나는 포괄적이고도 통전적인 디아코니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론적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디아코니와 교회공동체 중심의 통전적인 디아코니를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3.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특징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일반 사회사업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¹⁶⁾

첫째,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떤 물질적 시혜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뿌리인 인간의 죄성과 영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기독교 전통적 구원사상에 기초한다. 사실 기독교에서의 봉사(diakonia)는 사회사업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이다.

즉 도움을 주고 치료하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구원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정신으로 이루어진다.¹⁷⁾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활

16) 김동배(1993), 「기독교사회봉사의 비판적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 사회복지 연구 제1권』, 서울 : 연세대학교, pp.104-107

17) 이삼열(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

동은 하나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서 또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도출된 고통의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형제(fellow mortals)와 의 나눔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긴밀한 개인적 교제와 계속적인 상호부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과 유사한 집단이므로 이 안에서는 영속적이고 사적인 지원망(informal support network)이 형성된다.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관계가 종료하는 일반 사회사업의 방법론과 차이가 있다. 일반 사회사업은 대체로 내담자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의 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개시되며, 한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오랜 동안, 어떤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사망까지 개인 및 가족 단위의 관계를 맺으며 제공되었고 서비스의 종류 또한 광범위하다.

셋째, 교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권위주의적 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것보다는 성도에 의한 헌신적인 자발적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복지활동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전문가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자비로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아가는 데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는 사회활동이다. 자발적 복지활동은 복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 만 아니라 자발적 복지활동인 개인의 사회성 개발에도 중요한 공헌을 한다. 성도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은 수혜자에게 익숙한 생

활공간에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이루어지므로 수혜자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부정적 각인(stigma)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반 사회사업에서도 사회복지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는 자발적 복지활동인이 필수적이며 그 의의 또한 심대하다.

넷째,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유아세례, 결혼, 임신, 은퇴, 장례 등을 교회가 일정한 의식을 통해 공식화해줌으로 그 사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 독특한 문제,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부부, 독신자, 소년가장들에게는 교회가 대리가족(surrogate family)의 기능을 한다. 또한 실직, 이혼, 사별, 자살, 낙태, 성폭행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에게는 위기관리능력을 강화시킨다. 이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일상적인 혹은 위기의 사건들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인생과 세상을 깊게 이해하게 만들며 장래에 있을 사건들을 예견하여 자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통해 그 활동을 강화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가 복지활동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전문사회사업가에게 위탁한다거나 혹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신도를 수동적인 위치로 하락시킴으로써 교회에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지활동을 삶의 고유한 부분으로 여기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분열과 억압과 죽음

이 지배하던 곳이 화해의 형태를 띤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성장을 위한 복지활동'이 아니라 치유, 인간의 완성,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자발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수행해야 한다.

제2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성서적 근거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구약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봉사하다' 혹은 '섬기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말은 'אָבַד(아발)'이다. 이 말에서 '섬기는 사람', '종'을 뜻하는 'עֶבֶד(에벤)'이 나온다. 구약성경에서 '섬기다'는 동사는 271번 나오는데 비하여 '종'이라는 명사는 800번이나 나온다. 또 '종'이라는 명사는 거의 세 번에 한 번 꼴로 '하나님의 종', 또는 '야웨의 종'이란 표현으로 쓰인다.¹⁸⁾ 이렇게 볼 때 구약성경에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된 '종'의 개념에서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사회봉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창세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창세기에서 바라본 기독교사회복지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18) 박동현(1994),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편,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p.112

(imago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최초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악이 없으며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 자신의 존엄성과 유사한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죽음이 없고 선악과를 제외한 지상의 동식물에 지배권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땀 흘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존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렸으며 고통스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선한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행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의지의 표현이고 가치이자 제도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의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출애굽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율법서의 핵심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

한 경우에도 사회악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되며 또 빼앗아서도 안된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난한 자, 이방인, 노예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외되고 약한 빈자들에게 사랑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명령받았다.

율법서에서 봉사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약자, 곧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로 집약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대상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가난한 채무자를 위한 복지

고대사회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높은 이자 즉 고리와 관련된 문제이었다. 당시 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원금은 물론 제 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나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취할 수 있었다. 채권자들은 마음대로 고리(高利)의 이자를 거둬들였다.(이러한 관례는 Eshnunna법전이 제정된 후에는 제한을 받다가 Hamurabi법전이 생기고 난 뒤 이자는 원금의 20%로 제한되고, 곡식의 경우 33%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채무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다.¹⁹⁾

또한 하나님은 지나친 담보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일교차가 심한 동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기온이 떨어진 저녁에 커다란 천 조각으로 되어진 옷옷이 몸을 보호하는 이불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옷까지 전당(典當)잡는 것을 금지하였다.²⁰⁾

19) 출애굽기 22:25-27

20) 에스겔 18:7-7, 12-13

(2) 이방(異邦) 나그네를 위한 복지

이방나그네(sojourner, ger)란 어떤 나라에서 다소 제한된 시민권을 누리면서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또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족 사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방나그네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약자와 무기력한 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었던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유재산도 없고 보호받을 후견인도 없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압제와 학대를 생각하며 이방나그네들에게 호의를 갖고 선대해 줄 것을 명령받았다. 출애굽기에는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휴식하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출애굽기 이외에도 이방나그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²²⁾

(3)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

출애굽기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동시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출애굽기 22:25-27; 23:6, 10-11).²³⁾

(4) 과부와 고아를 위한 복지

과부와 고아가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경제

21) 출애굽기 22:21; 23:9, 12

22) 레위기 19:9-10; 20:33-34

23) J. Hoppe Leslie, 나요섭 역(1992), 「성서에 나타난 가난」, 서울 : 나눔사, p.17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이들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에 눈에는 눈으로 복수를 행하는 잔혹한 동형복수법(同形復讐法, Talion의 법)²⁴⁾보다 더 무서운 징벌로서 복수를 행하신다.²⁵⁾

(5) 노예를 위한 복지

노예에는 전쟁포로노예, 수입된 외국인노예, 매매된 미성년자노예, 자원 매매된 노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노예 등이 있다. 자원매매로 이루어진 노예는 굶주림이나 빚에 쫓들린 나머지 자기 자식을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마저 팔아 스스로 노예가 된 경우이다. 메소포타미아 법에는 채권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사로잡아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자유인이지만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허용되었다.²⁶⁾ 그러나 성경은 이들 이스라엘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의 학대를 금하고, 7년 되는 해에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고,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²⁷⁾

3) 레위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출애굽기에 이어 레위기에도 사회복지 사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

24) 박요일(1987), 「출애굽기 강해」, 서울 : 크리스찬서적, p.101

25) 출애굽기 22:22-24

26) 김기원(1998),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p.64

27) 출애굽기 21:2-4

씀하셨는데, 거룩이란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것, 일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려 깊은 행동, 이주자(移住者)에 대한 평등, 정직한 상행위(商行爲)와 모든 사회적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실천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²⁸⁾

(1)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극빈자들이 생존을 위해 부자의 자발적 배려를 명령하고 있다.²⁹⁾

(2) 안식년(安息年)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수확물은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동물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3) 희년(禧年)

희년³¹⁾은 본래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토지회복제도이다. 희년이 선포되면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웅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 이 희년사상은 안식년과 더불어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의도가 있었으며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려 하였다.³²⁾

28) Christopher, Wright(1983), *Living as people of God*, (England : Intervarsity Press), p27

29) 레위기 19:9-10; 25:35-37

30) 레위기 25:4-7

31)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거듭된 다음 해, 즉 50년째의 해이다.

32) 레위기 25:9-10

4) 신명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셨다.³³⁾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은 곧,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압제자의 자리에서 군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망각치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명기 법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년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회년은 하나님의 의지를 법제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일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며 경고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이 법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동기를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회년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그 때의 억압과 설움을 기억하여 억눌린 자들에 대한 보호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다.³⁴⁾

(1) 사회복지를 위한 십일조

신명기 14장에서 처음으로 십일조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십일조가 복지사상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십일조는 마땅히 바쳐져야 하는 것, 십일조는 마땅히 나누어져야 하는 것, 십일조를 저축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십일조의 중요한 사용용도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십일조

33) 신명기 8:11-17

34)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 중심인 것이다.(신명기14:28-29; 26:12).³⁵⁾

(2) 여호와와 면제년(免除年)

신명기에는 여호와와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보살피심을 기억하여 감사의 보답으로 그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해라는 뜻이다. 신명기는 부자들이 자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부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빈곤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칠 년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을 자진해서 면제해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노예계층이 이스라엘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³⁶⁾

(3)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안식년

안식년은 히브리 달력의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이다. 이 해는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채무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고, 또한 이들이 터 잡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규정하여 놓은 한 해를 뜻한다.³⁷⁾

5) 예언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35) 김기원(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p.69

36) 신명기 15:1-4

37) 신명기 15:12-14

율법서에 나타난 사회봉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취적 봉사에 근거하고 있다면, 예언서에 나타난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수립된 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극도의 타락과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다. 그들은 사회적 불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당시 사회 지도층의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불의를 고발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예언했던 자들이다.

가나안 정착과 왕정체제의 수립, 도시문화의 발달은 각자로 하여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낳았다.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은 사치를 일삼았으며, 귀족과 고관들은 밤새 술이나 퍼마시는 향락주의자들이 되었다.³⁹⁾ 그리하여 당시의 사회풍조는 상호부조나 부의 공평분배, 형제애를 완전히 도외시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본분과는 어긋나게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온갖 형태의 경제적 억압에 예속시켰으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약탈하는 공식문서와 그 해석들을 남발하여 올바른 소송절차를 왜곡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었다.⁴⁰⁾

당시 지도자들의 부패, 매수된 재판관, 식탐에 물든 부패한 궁정예언자와 사제들의 불의는 그들의 식탐과 소유욕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예언자들은 교역과 생산으로 일어난 경제발전을 부인하거나 문제시하

38) 서대석(2000),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39) 이사야 5:11

40) 이사야 10:1-2

지는 않았다. 문제시한 것은 적은 노동과 노력으로 쉽사리 큰 수익을 얻는 상황, 부당하게 축적되는 자본과 재산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제 체제였다.⁴¹⁾ 사제와 궁정예언자들은 착취자들의 돈에 매수되어 종교적 허례허식과 위선을 낳았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⁴²⁾ 만드는 대신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을 제일로 여겼다.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도 제사만 중시하였던 것이다.⁴³⁾

이에 대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의와 조화될 수 없음을 말하며,⁴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겉치레의 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가난하고 압제 당하는 자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선포하였다.⁴⁵⁾

부정과 부패는 비단 지도층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 전체에 만연되었다. 백성들도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⁴⁶⁾ 이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가장 강하게 호소한 예언자인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 이렇게 질타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

41) 서인석(1987),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 분도출판사, pp.13-139

42) 아모스 5:24

43) 서인석, 전계서, p.147

44) 이사야 3:15

45) 이사야 58:6-7

46) 에스겔 22:29

끝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아모스2:4-8)

여기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행적 봉사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봉사인 것이다. 따라서 아모스는 그러한 이스라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4가지의 사회악으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인신을 매각하는 행동이다. 둘째 죄악은 곧 힘없고 가련한 이들에 대한 억압이다. 셋째 죄악은 인륜의 실추이다. 넷째 죄악은 채무자들에 대한 수탈이다. 이 대표적인 죄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한다. 이로써 아모스는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에게 대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만행을 고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강자들의 행동을 질타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공법과 정의의 실천'은 율법서에서 규정한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언자들은 모든 설교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는 인간부류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빈민들이었다. 예언자들의 중심사상은 사회정의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비판과 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하신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입각한 메시아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⁴⁷⁾ 이 메시아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

과 공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뜻한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기독교 복음의 출발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건에 있다.⁴⁸⁾ 즉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고, 그 절정의 사건이 곧 당신의 몸을 온 인류를 섬기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다.⁴⁹⁾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하려 함이로라."(마태복음5:17)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삶과 죽음은 구약성경 율법서의 약자 보호로서의 사회봉사와 예언서의 공의실현으로서의 사회봉사를 성취함으로써 교회 사회봉사의 시금석이 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복지 사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보냈으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방인, 환자를 사역의 중심에 두셨다.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외국과 연접해

47) 이사야 61:1-3

48) 요한복음 1:14

49) 김지철(1994), 「신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p.124

있기 때문에 비니게나 수리아 그 밖의 외국군에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앗수리아 문물이 쏟아져 들어와 갈릴리인들은 혼혈종이 많았다. 또한 수리아 일변도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 정책 뿐 아니라 앗수리아의 우상들을 입수하게 되었고 글자 그대로 “어두움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⁵⁰⁾

예수님은 약한 여자, 세리, 환자, 문둥병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배려하지는 않으셨다. 도리어 갈릴리의 경제·문화적으로 약한 무리들을 위해 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과 그가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19)

그리스도인들의 복지활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임으로 이 귀한 사랑과 실천이 분리되어서는 의미가 없고, 인간의 책임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⁵¹⁾

예수 그리스도의 복지활동에 관한 교훈으로 표준이 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이다.⁵²⁾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와 예수의 대화 내용에서 예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50)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p.35

51) 야고보서 2 : 14-26

52) 누가복음 10 : 25-37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호를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예수는 '양과 염소 비유'⁵³⁾를 통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환자를 돌보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옥에 갇힌 자에게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복지활동의 방법 및 대상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사회복지활동 행위의 유무를 구원 및 심판, 영벌 및 영생의 결정으로 그 필요성을 강력히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들에게 식탁을 열어 주었다. 당시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열었던 식탁은 결코 빈민구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좀더 종교적인 것이었다. 즉,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여는 식탁은 작은 천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식탁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룩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식탁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였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식탁을 자주 열었는데, 세리나 죄인들 같은 사람들은 결코 그 안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저주받은 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식탁을 열고, 그들을 맞아 주었다. 이 행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없이 너희를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를 보여 준 것이다. 이 식탁교제는 비록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편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53) 마태복음 25 : 31-46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었다.⁵⁴⁾

그리스도는 또한 이 세상의 샬롬(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⁵⁵⁾ 이 메시아 왕국은 계약법에서 구현되는 정의와 예수의 공동체에서 구현되는 코이노니아(koinonia)의 실재를 통전하는 개념이다. 즉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사회의 불의로 인한 불일치, 갈등 등을 극복하여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다. 단순히 전쟁, 분열,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코이노니아가 넘쳐서 완전함을 이루는 역동적인 샬롬의 실재이다.⁵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샬롬의 본래적 개념은 집합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개인과 가족, 가족과 가족, 주민과 주민, 이웃과 이웃끼리 샬롬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공생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사회복지가 교회의 목회전략으로 코이노니아를 전제해 나갈 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초대교회와 나눔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는 곧 초대교회의 부활공동체의 오순절 성도의 교제로 확산되었다. 기독교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

54) 오봉근(2000), 「교회지도자의 사회복지활동 경험과 의식조사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55) 이사야 9 : 6, 미가 5 : 5, 스가랴 9 : 9, 누가복음 2 : 14

56)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P.37

체, 즉 참여가 극대화되는 공동체의 구조를 가지며 이것이 예수의 형태로 그의 공동체에서 형성되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들이 서로 연대하고 친교하며 자기희생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빈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도들이 말씀에 더욱 정진하게 하기 위해 구체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선출했는데 이로 인해 집사제도가 탄생하게 된다.⁵⁷⁾

이처럼 초대교회는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 사역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3) 바울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강조된 요보호자들에 대한 관심은 바울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강조된다. 그는 헌금의 사용을 구체화하는 실제적인 동의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바울의 훈계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⁵⁸⁾

로마서에서는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 실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고, 서로가 자기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서로 하나가 되어 이루시길 원하고 계신다.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하며 주의 뜻

57) 사도행전 2:44-47; 4:32-35

58) 고린도전서 12:18-19, 25-26; 16:2

을 행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해야 한다.⁵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서적 근거를 가진 사회복지를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1. 초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1884년-1910년)

초기의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는 외국선교사들이 개화기 때 입국과 함께 의료와 교육 그리고 구제에 우선하여 선교를 이루어 갔기 때문이다.

외국의 개화된 문명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물밀 듯이 닥쳐오고 있었으나 국내적으로는 개화된 외국 문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개화세력과 보수사대 세력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에 예기치 않던 사건이 발발하였다. 그것은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 곧 우정국 사건으로 이때 개화세력의 칼에 맞았던 사대세력 보수계의 중추인 민영익이 중태에 빠지자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있던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이 중태에 빠진 민영익을 치료하여 주었고 이로 인해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아 전도가 서서히 호전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신임을 얻어 알렌은 1885년 4월 10일에 광혜원(널리 혜택을 주는 집)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국립병원이었다. 이어서 1887년에는 제중원(많은 무리를 도와주는 집)으로 고

59) 로마서12:7-13

쳐 명명하였다. 또한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 스트랜튼(M.B.Screnton) 여사는 빈민과 부녀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이대 부속병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스트랜튼 선교사의 요청으로 파송된 감리교 선교회 소속의 여의사 로세타 셔우드(Rossetta Sherwood)가 입국하여 여성의료에 힘쓰게 되어 여성의료기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평양에서 기흥병원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 지방병원에도 선교사들에 의해 건설된 병원이나 진료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에서는 환자의 대부분이 돈 없고 소외당한 민중 계층이었고, 한편, 1884년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자 교회는 곧 복지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유아원과 양로원, 맹인학교, 구제사업, 나환자 돌보기 등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1892년 성공회 신부 랜디스(Landies)가 고아원 학교를, 1898년에 여선교사 홀(Hall)은 맹인을 위한 맹인학교를, 1909년에는 한국연합선교회가 부산에 설립한 나환자 수용소에서는 나병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구호하였다.

교육사업은 1886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G.Appenzeller)목사에 의해 배제학당이, 스크랜튼 여사는 민비가 하사한 이화학당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경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에 대학부가 설립되어 연희전문이 되었고 후에 세브란스가 된 광혜원이 합쳐져서 오늘날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1887년 엘러스(A. J. Ellers)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주로 부모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며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날 정신여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1897년 숭실 학교, 1893년에 배화 여학교, 1903년 평양에 승의여학교, 1904년에 기성에 호수돈, 대구에 신명 여학교 등이 설립되었

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정책을 확고히 수입하였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의 교회,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교회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사업의 실시는 1883년 천주교 블랑(I. M. G. Blance)주교가 서울의 곤당돌에 영해원이라는 보육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외에도 의원기관을 통한 사업인 구세군(1878년 6월에 창립)은 영국의 뒷골목 빈민자 구제사업에 종사하던 감리교의 젊은 교역자 윌리엄 부우스(William Booth)에 의해 시작하게 되어 “선교와 봉사”를 병행하여 특유의 구호사업 및 사회사업 활동을 하였다.

초기의 교회사회복지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①병자와 부상자에 대한 과학적 치료, ②빈민, 고아,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사업을 통한 조직적인 보호대책, ③미신과 악령숭배의 감소, ④어린이에 대한 존중, ⑤조혼과 결혼관습의 개선, ⑥여성에 대한 태도와 처우의 개선, ⑦민주주의 사상, 한국인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과 재인식, ⑧민주적 인간관계와 계층차별의 타파, ⑨사회복지에 대한 봉사와 새로운 관심, ⑩알코올, 마약 유독성 약종에 대한 계몽, ⑪한글의 보급과 일반화 등이 있다.⁶⁰⁾

그 당시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은 무지와 질병, 빈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지러울 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국 선교사의 이러한 업적들은 현실을 이겨나가고, 발전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되었다.

60) 장종녀(1998),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결론적으로 초기의 외국선교사들과 의원기관들의 의료와 교육 그리고 구제사업들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교로서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⁶¹⁾

2. 일제치하의 한국교회 사회복지 활동(1910년-1945년)

1904년까지 한국교회는 46개의 남녀 초등학교를 세웠고, 계속하여 중·고등학교를 세웠으며, 교사를 훈련하는 학교와 한국교회의 첫 목회자를 배출한 신학교를 건립하였다. 1903-1904년에는 5,4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들의 회중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사양성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1905년까지 기독교는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0개의 신식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⁶²⁾

1905년 을미조약이 체결된 후 기독교는 항일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는 신사참배와 기독교 교육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을 펴 나갔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모든 교회의 집회 금지뿐만 아니라 폐쇄령을 내렸고 1942년에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시켰다. 초기 교회 때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의 성장과 신교육을 통한 사회의 복지사업이 한창일 때 1910년 일제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해 폐교를 강요하여 교육사업은 위축되었으나 나름대로의 성

61) 엄지선(2000), 「기독교 사회복지사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아동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62) 박정신(1989), 「한국개신교 성장에 대한 역사적 설명시도」, 「기독교사상 4월호」, p.119

과는 유지시켜 나갔다. 의료 계몽사업과 순회진료, 무료진료 사업은 1922년 당시 기독교 병원수가 26개에 총진료 환자수가 244,000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인구 1,700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성과였다.⁶³⁾

미국 선교사 R.M. Willson에 의하여서 1090년 창설한 “광주나병원”이 1936년 명칭을 “여수 애양원”이라고 개칭하였다.

또한 1913년 3월에 의료선교사 Dr. A. Fletcher는 “대구 애락 보건병원”을 창성하여 나병환자의 수용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초가집을 구입하여 2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였다.

이어서 1918년 장로교 제7차 총회에서 나병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으며, 이 영향으로 소록도에 나병원이 설립되었다.

1928년 홀(Rosseta S. Hall)부인에 의하여 해주에 개설된 구세요양원은 마산요양원과 함께 많은 결핵 환자들을 절망에서 구출하였고, 또 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실을 판매함으로써 결핵박멸운동에 앞장섰다.

외국선교의 의료사업은 식민지하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무료진료 사업과 의료계몽사업, 순회진료사업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독교계의 병원은 노력하였다.

아동복지를 위해 고아원이 여러 지역에 설립되고, 1920년 이후 최초로 영변지방에 유치원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가치를 주지시키는가 하면 그 당시 사회와 부모들에게 아동교육과 발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사회선교 및 농촌 계몽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갔다.⁶⁴⁾

63) 장종녀,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이처럼 일제시대의 한국기독교의 특징은 민족이 처한 사회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밀접하게 반응하는 사회참여적 교회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교회는 일본의 통치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의 마음과 정신을 위로한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3. 해방 후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1945년-1960년)

8·15 해방 후에 한국의 사회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전의 사회사업을 근대적 사회사업의 계몽기라고 할 수 있다면 해방 후의 사회사업은 그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맹인 교육과 농아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대구 동아 맹인학교 창설자 이영식 목사, 구화교육(口話教育)의 개척자 최병운 장로 등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와 기독교 기관의 도움으로 맹인 농아 사업을 활발히 진행되었다.⁶⁵⁾

한국전쟁은 민족의 큰 아픔이었다. 교회 역시 많은 지도자들을 잃고, 교회들은 파괴되었지만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배고픈 자들에게는 음식을, 집이 없는 자들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수백 개의 구호기관들이 요보호자들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한국교회는 엄청난 구호품을 서방으로부터 입수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1950년에는 형무소 교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명의 목사가

64) 한국기독교사회 편(1991),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서울 : 기독교문사, pp.240-241

65) 강혜영(1989),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교도소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무렵 기독교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사회사업가를 육성하고 각 사회복지 분야에 진출시켜 한국사회복지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1953년 동란 종결 직전에 중앙 신학교에 당시 YMCA 연맹 후원으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고, 서울대학교(1957),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교(1958)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전공학과로 설치되었다.

4. 성장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1960-1980년)

박정희 정권이 1962년부터 4차에 걸쳐 실시한 경제개발계획이 1970년대의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급진적 경제 및 사회변화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도시화 현상이, 문화면에서는 대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사회가 도래함으로 근로자의 후생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복지라는 이름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1970년도 이후 산업선교를 통해서 노동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1971년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산업체내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동 실무자 훈련, 노동운동 지도자 교육, 노동자 의식화 교육, 노동자 조직활동, 노조 지도자 육성, 노동자 복지활동의 지원 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빈민 문제 역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초기 도시빈민선교 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억눌리고 소외된 도시빈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이 개인이

나 사회단체로 이양되는 등 초기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분열이 큰 요인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국가 경제의 향상에 따라 교회 역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재원과 자원을 지닌 한국교회가 이웃 사랑의 실천인 사회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귀근은 그의 논문에서 개신교 사회복지 사업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66)

첫째로, 원시종교 공동체의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독교 교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 돌리는데 기여했다. 둘째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원조와 서비스의 제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발전시켰으며 이것들은 근대화 사회사업의 태동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셋째로, 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에 주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기능을 교회가 수행하였고, 민간복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넷째로, 선교초기 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서구 사회사업의 개념과 기술이 전래되었으며 교회사회복지는 한국 사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이래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적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66) 한귀근(1984),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0

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초기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회복운동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본 단원에서는 전국 개신교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양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와 목회자의 사회복지적 특성들, 그리고 목회자의 생태체계들의 사회복지관련특성들을 조사하여 그것들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교회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제1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

1.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의 실태

1)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의 특성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회자의 사회복지적 특성은 그 생태체계들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목사, 교직자, 교역자, 성직자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 성만찬 등의 의식을 집행하며, 설교,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양떼를 돌보는”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모백(Moberg, 1984)은 목회자의 역할을 설교자, 교육자, 조직의 대표자, 행정가, 집단지도자, 상담가, 상징적 역할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교인들의 영적 용구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치료자의 역할, 또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 안내자의 역할, 임종과 유족에 대한 사역 등 여러 가지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회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목회신학의 한 주제로서 다루어져 왔으며 교회성장론, 교회 행정학, 교회 지도자론, 종교사회학 등의 학문적 영역에서 깊이 연구되어져 왔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교인들과 그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적 특징과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목회자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사회복지적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들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의 경험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활동,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위한 지식 또는 기술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1)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목회자가 가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어왔다. 그 동안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저조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어 왔던 봉사목회신학 부재의 문제나 사회봉사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수준의 문제등은 모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인식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목회자의 인식과 교회사회복지활동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아온 것

이 사실이다.

그 하나의 예로 「한국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1990)에서 목회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교단의 사회봉사 지침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볼 때 교단의 사회봉사적 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기장(90.7%)이나 카톨릭(76.7%), 통합측(72.5%)목회자와 교인들의 비율이 침례교(52.4%)나 고신측(45.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김동배(1994)의 연구에 의하면 목회자의 90% 정도가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인식, 산업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개입범위에 대한 인식, 사회봉사활동 목적 및 사회봉사활동 범위에 대한 인식 등)이 사회봉사비 비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가 사회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제언한 바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교회사회 복지활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인식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복음주의 교회는 중산층이 중심세력이 됨으로써 기질적으로 보수화 되고 사회변화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목회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하게 느낄수록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는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사

회사업은 가장 후 순위에 두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을 전도나 선교의 중요성과 비교함으로써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사회복지활동을 인식하는가의 문제이다. 한국교인의 신앙적 특성이 내면적이고, 내세적이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최초의 개신교 신앙은 매우 사회적이고 관계적이었으나 1907년 대부흥운동과 함께 시작된 개신교 신앙의 내면화 과정은 일제시대의 억압적 통치상황에서 매우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목회자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매우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목회자가 빈곤, 빈부격차, 사회부조리, 범죄, 환경, 등 산업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진 목회자일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은 언제나 사회문제를 근거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복지의식도 높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 설명이라 보여진다.

다섯째로 목회자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할 의지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인식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인식이 높을수록 동질적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예산배정을 통한 목회자의 인식측정이다. 교회의 예산은 목회자의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

로 목회자가 교회의 예산의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항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사회복지 인식이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는 목회자의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아의식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은 사회복지적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사회적, 제도적, 물질적, 복지분야에 대한 지도자적 자아정체감도 사회복지인식의 중요한 관련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장춘⁶⁷⁾은 목회자의 사회복지 인식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교회가 약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1.9%의 목회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고, 23.8%의 목회자들이 “조금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95.7%의 목회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전도나 선교만큼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9.8%가 “매우 그렇다”로, 41.1%가 “조금 그렇다”로 대답함으로써 90.9%의 목회자들이 교회사회복지활동에 교회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전도 또는 선교와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가량의 목회자만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약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확신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67) 유장춘, 전계논문, p.69

[표 1] 목회자의 사회복지인식

N(%)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그렇 지않다	절대그렇 지않다	합계
교회의 약자에 대한 책임	314(71.9)	104(23.8)	13(3.0)	6(1.4)	437(100)
교회사회복지활동 중요성	218(49.8)	180(41.1)	32(7.3)	8(1.8)	438(100)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써 복지활동	260(59.4)	109(24.9)	52(11.9)	17(3.9)	438(100)
산업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개입	172(39.3)	219(50.0)	36(8.2)	11(2.5)	438(100)
지역기관과 교회의 협력	234(53.4)	182(41.6)	19(4.3)	3(0.7)	438(100)
교회의 복지관련 예산확충	164(37.4)	209(47.4)	56(12.8)	9(2.1)	438(100)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목회자상	253(57.9)	139(31.8)	34(7.8)	11(2.5)	437(100)
복지 지도자로서 목회자 정체감	189(43.2)	125(28.6)	84(19.2)	39(8.9)	437(100)
평 균	226(51.5)	158(36.2)	41(9.3)	13(3.0)	438(100)

자료: 유장춘, 2000, p.69

세 번째 항목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대방향에서 물어보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59.4%, “조금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24.9%로서 목회자의 절대다수(84.3%)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째로 교회가 빈곤, 빈부격차, 사회부조리, 범죄, 환경훼손 등 산업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항목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39.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0.0%가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확신은 떨어져도 대부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교회의 여러 예산 항목 중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항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37.4%가 “매우 그렇다”를, 47.7%가 “조금 그렇다”를 응답함으로써 85.1%의 목회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사회복지활동 예산비율(평균 7.3%)과 적정예산 비율(18.7%)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로,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도자도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목회자의 57.9%가 “매우 그렇다”로, 31.8%가 “조금 그렇다”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자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곱째로 “목사가 영적인 분야에서는 지도자이지만 사회적, 제도적, 물질적, 복지적분야에서는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역방향 질문에 대하여는 43.2%의 목회자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8.6%의 목회자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정체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장금석이 연구한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조사⁶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이라는 응답이 1명(2%), 지역사회라는 응답이 교회라는 응답이 11명(17%), 교회라는 응답이 26명(40%),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17명(26%), 중앙정부라는 응답이 10명(15%)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요보호 아동문제가 2명(3%), 청소년 문제가 27명(43%), 노인문제가 16명(25%), 장애인문제가 9명(14%), 환경문제가 9명(14%)으로 분포되어 있다.

68) 장금석(2001),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24명(42%), 바람직하다고 29명(51%), 그저 그렇다가 3명(5%),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1명(2%)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예배 중심적인 시설 이용을 변화시켜 지역에 교회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식은 교회 사회복지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관련 인식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51.5%의 목회자가 매우 높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36.2%의 목회자가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갖고 있고, 9.3%의 목회자가 비교적 낮은 인식을, 그리고 3.0%의 목회자만 매우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사회복지적 인식 양상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바와 같이 교회들의 사회봉사에 가장 큰 장애가 목회자의 인식부족, 또는 봉사신학의 결여라는 생각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정도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인식정도와 정비례의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논란되어 왔다. 목회자들의 사회복지 인식은 높은 반면에 참여의 정도는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목회자의 인식과 교회사회복지 예산과의 인과관계가 별로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교회사회복지활동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⁶⁹⁾

목회자가 실제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내용으로써 교회의 각종 예배에서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설교를 강론하는 일,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자원봉사를 권장하는 일, 또 교회의 예산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활동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고,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내용으로써는 지역사회 사회복지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유장춘이 목회자의 실제적 사회복지활동 참여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⁰⁾

첫째로 사회복지활동을 주제로 하는 설교횟수에 있어서 거의 매주 하는 목회자는 0.7%에 불과하였고, 1회 이상 하는 목회자도 12.5% 뿐이었다. 한, 두 달에 한번씩 하는 목회자는 36.3%이었고, 일년에 1,2회 정도 하는 목회자가 50.5%에 달했다.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자원봉사 권면 정도는 매우 권장하는 목회자가 3.6%, 약간 권장하는 목회자가 19.4%, 별로 권장하지 않는 목회자가 59%이었고, 전혀 권장하지 않는 목회자도 18%나 되었다. 이는 목사들의 목회가 예배중심, 전도중심으로써 봉사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세 번째 항목으로써 목회자의 목회적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질문했을 때 매우 노력한 목회자가 3%에 불과했고, 조금 노력한 목회자가 26.5%, 별로 노력하지 않은

69) 성규탁 외(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신학대학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p.40

70) 유장춘, 전개논문, p.71

[표2]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사회복지활동관련 설교빈도	빈도수	비율
거의 매주	3	7
월 1회 이상	54	12.5
1, 2개월에 한 번	157	36.3
일년에 1, 2회	218	50.5
전체	432	100.0
자원봉사에 대한 권면 정도		
매우 권장함	16	3.6
약간 권장함	85	19.4
별로 권장하지 않음	259	59.0
전혀 권장하지 않음	79	18.0
전체	439	100.0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매우 노력함	13	3.0
조금 노력함	116	26.5
별로 노력하지 않음	253	57.9
전혀 노력하지 않음	55	12.6
전체	437	100.0
지역사회복지활동 참여		
매우 적극적	41	9.4
조금 적극적	182	41.1
조금 소극적	162	37.0
매우 소극적	53	2.1
전체	438	100.0

목회자가 57.9%나 되었다. 그리고 전혀 노력하지 않은 목회자도 12.6%나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목회자가 가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이 교회목회에 실제적으로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실천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목회자의 참여 정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9.4%,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41.1%, 조금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37.0%, 그리고 12.6%의 목회자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응답하였다. 이것

은 부정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높았던 앞의 세 가지 항목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써 긍정적인 평가가 50.5%로서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여부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인데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는 별로 복지활동을 강조하거나 복지의식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교회 내적인 활동보다는 외부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시설에 연결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교육·훈련 경험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교육과 훈련의 경험 부족으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사회복지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과정적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실천 방법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해도 선블리 실천현장으로 뛰어들기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훈련은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경험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인력개발연구원⁷¹⁾의 조사에서는 목회자의 63.2%가 1개월 이하의 사회복지사업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규탁 등의 조사⁷²⁾에서는 전문사회복지 교육을 이수

71) 자원봉사인력개발연구원(1990),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업 조사연구」, 서울 : 성광문화사, p.105

72) 성규탁 외(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21.8%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회봉사가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단의 신앙적 특성, 사회적 태도, 제도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목회자들이 사회복지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할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한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활동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수를 경험하는 것과 총회 또는 노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관련 세미나 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복지 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한 경험 있는 목회자는 10.9%이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활동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17.3%이었으며, 그리고 총회나 노회에서 사회봉사관련 세미나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은 모두 21.6%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가지 이상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모두 43.8%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이나 훈련의 경험이 전혀 없는 목회자(56.2%)들이 조금이라도 교육·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교육의 경험은 학교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교단의 복지교육은 목회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⁷³⁾

신학대학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p.30

73)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3

목회자의 교육·훈련 경험의 빈곤은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과 사회복지활동 참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높은 사회복지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정보가 부족하고, 방법에 대하여 무지하며, 현장 경험이 없다면 두려워지고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표 3] 목회자의 사회복지 교육·훈련 경험

사회복지훈련	한다 / 안한다		안한다 / 없다		합 계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사회복지교육경험	192	43.8	248	56.2	440	100.0
학교에서	48	10.9	392	89.0	440	100.0
기관에서	76	17.3	394	82.7	440	100.0
교단에서	95	21.6	345	78.4	440	100.0

자료 : 유장춘, 2000, p.73

2) 목회자의 생태체계

생태체계라는 개념은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하나의 개체는 그 개체와 연결된 다양한 여러 요소들과 서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관점이다.

사회사업의 실천은 개인의 인성변화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제도간의 효과적인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도 개인과 사회환경간의 내적, 외적, 힘의 균형을 설정해 주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체계론적 관점은 사회사업의 관심을 개인의 정신 내적 현상으로부터 여러 관련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체계이론에 의하면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총체,” “구성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연관성”이며, “부분들간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전체로서 기능하는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체계는 “총체성(wholeness)”과 “상호성(interrelatedness)”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개념들을 종합하면 체계는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하여 체계자체의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내의 긴장은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 상호성의 원칙은 유기적 개체로서 목회자와 그의 생태적 환경체계가 서로 호혜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복지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는 가설을 가능케 한다. 즉 교회사회복지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목회자는 교회와 교단,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의 일반적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동시에 그 생태적 체계들도 목회자의 기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목회자의 생태체계를 연구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다양한 생태체계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reciprocity) 적응해 나가는(adaptation) 개인으로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생태체계들과 목회자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밝혀낸다면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동료체계

동료집단은 공통된 관심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직업, 전문영역, 그

리고 보통 비슷한 나이 또는 동성으로 형성되는 집단으로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정보와 승인의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갖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과 활동, 또는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

목회자들도 출신학교, 출신교회, 출신지역, 그리고 목회사역을 통해서 동료집단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리고 이 동료집단 속에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사역의 효과성과 직업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해 주고, 사적인 느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관계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동료체계가 목회자의 사회복지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동료체계 내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논의의 빈번한 정도, 또 동료로부터 목회사역에 받는 영향의 정도가 파악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체계의 사회복지관련 특성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목회자의 동료 중 사회복지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43%이었고, 1명이나 2명이 있는 경우는 34.5%, 3명에서 5명 사이는 16.9%, 6명 이상일 경우는 5.4%정도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목회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동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목회와 사회복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동질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의 연계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

[표 4] 목회자 동료 중 복지관련자와 상호작용정도

	빈도수	비율(%)
동료 중 복지관련 전문인		
없다	189	43.2
1-2명	151	34.5
3-5명	74	16.9
6명 이상	24	5.4
합계	438	100.0
동료의 영향		
아주 작은 편이다	109	24.9
비교적 작은 편이다	198	45.3
비교적 큰 편이다	117	26.8
매우 큰 편이다	13	3.0
합계	437	100.0

자료 : 유장춘, 2000, p.76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목회사역에 대한 동료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아주 작은 편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4.9%이었고,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45.3%이었다. 동료들의 영향이 비교적 크거나 매우 큰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8%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사역에 있어서 동료들의 영향은 비교적 약하게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교회체계

교회는 목회자가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는 환경이다. Kurt Lewin이 말한 “생활공간(life space)” 또는 “심리학적 장(psychological field)”으로써 교회는 목회자의 마음속에 실재(reality)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일반적 특징

교회의 일반적 특징은 인구사회학적인 항목들로서 교회의 존속기간

과 총 예산, 교인의 수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⁷⁴⁾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40%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교회의 재정문제를 지목했고 또 「사회봉사 총람」에서는 61.4%가 재정부족이라고 응답하여 두 개의 조사 모두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목회자들의 사회복지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재정문제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인수도 인적 자원의 형편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교회의 존속기간은 교회의 총예산과 교인 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는 교회의 존속기간과 총예산, 교인의 수, 그리고 교회의 위치 등과 같은 일반적 특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 교회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성규탁⁷⁵⁾의 조사에서는 교회가 존속해 온 기간이 6-15년이 31%로 가장 많았고, 36년 이상된 교회가 26.5%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교회의 총예산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이하인 교회가 40.6%로 가장 많았지만 천만 원 이하인 영세교회도 11%나 되었고, 3억 원 이상인 대형교회도 5.5%나 되었다.

한편으로 교인 수에 있어서 100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가 33.1%, 101명에서 500명 이하인 교회가 45.9%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교세를 반영하는 소재지역, 총예산, 교회 수, 그리고 교인의 생활수준은 사회봉사비 비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회의 존

74) 자원봉사인력개발연구원(1990),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 성광문화사, p.36

75) 성규탁 외(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신학대학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p.19

속기간이 짧을수록 교회의 사회봉사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장춘⁷⁶⁾이 조사한 교회의 교인 수는 50명 미만의 교회가 34.2%로서 신생교회가 매우 많았고,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교회가 18.2%, 1백명 이상 2백명 미만의 교회는 14.3%이었다.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의 교회는 16.8%이었으며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교회는 8.2%, 그리고 1천명 이상의 교회는 8.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인 수는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포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절반을 훨씬 넘는 특징과 함께 1천명 이상의 대규모 교회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추정할 수 있다.

②복지자원

사회복지활동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갖고 있는 복지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목회자도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삼⁷⁷⁾은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생명자원이라고 이름짓고 그 생명자원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복지자원으로서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물질자원, 조직자원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유장춘은 교회의 사회복지자원을 인적자원과 시설, 재정으로 재구성하였다.

인적자원은 교회 교인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수준과 교육적 수준, 그리고 출석율과 일인당 헌금액으로 측정되는 헌신적 수준으로 측정될

76)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7

77) 박종삼(1992),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 이삼열 역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p.183

수 있다. 성규탁 등⁷⁸⁾의 조사에서는 교인들의 생활수준이 중수준 35.9%, 중하수준이 44.8%로 집계됨으로써 교회의 교인의 일반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⁷⁹⁾에서 조사대상 목회자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사회봉사 실천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량분석 결과를 볼 때 총예산이 많아져도 사회봉사비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자원 수준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교회의 복지적 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게 한다. 이들의 조사에서 한가지 주목할 내용은 특별헌금을 많이 할수록 사회봉사비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교회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그것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사회복지적 활동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시설적 특징은 교회시설의 건물평수와 사회복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의 규모를 통해 평가되며 교회의 재정적 특징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로 측정될 것이다.

유장춘⁸⁰⁾의 조사에서 교회의 시설이 50평 미만인 교회는 2.7%이었고, 50평 이상 100평 미만인 교회는 21.4%로 나타났다. 100평 이상 200평 미만인 교회는 20.5%이고 200평 이상 300평 미만인 교회는 10.8%, 그리고 300평 이상인 교회들은 모두 2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회의 시설규모는 예배실, 교육관, 사택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활용하기엔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치준⁸¹⁾의 헌금과 총예산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

78) 성규탁 외(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신학대학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p.21

79) 성규탁 외(1991), 상계서, p.36

80)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9

는 비용(교역자 급여 32.3%, 교육비 7.9%, 예배비 5.3%, 관리비 16.2%, 운영비 10.4%, 건축비 10.3%)이 전체의 82.4%이며 교회 밖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의 9.3%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 교회가 조직내의 물질적 자원을 개별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주로 사용함으로써 개교회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유장춘⁸²⁾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재정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작은 교회는 33.3%이었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교회는 18.4%,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의 결산규모교회는 16.7%이었으며, 2억에서 5억 사이의 규모가 15.3%, 마지막으로 5억 이상의 교회들은 16.3%이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재정규모는 교인 수와 비교할 때 일인당 약 86만 3천원으로써 1992년 노치준의 조사결과 50만 9천원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⁸³⁾ 미국교회의 일인당 헌금액(588,74불)이나 캐나다 교회의 일인당 헌금액(386.14불)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를 매우 낮은 사회복지 예산비율과 연계할 때에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높은 재정적 헌신도를 사회와 지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인들의 일반적 경제수준에 대한 실태는 상류층 교인들이 일반적인 교회는 0.9%에 불과한데 반하여 하류층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는 20.1%나 되었다. 또 중류층 이상을 모두 합치면 34.9%에 불과하

81) 노치준(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 민영사, p.33

82)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7

83) 노치준, 상세서, p.220

지만 중하류와 하류층을 합치면 65.1%나 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교인들의 일반적인 경제 수준은 비교적 가난하거나 가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헌금 수준과 연계하여 이와 같은 경제적 수준을

[표 5] 교회체계 사회복지관련 실태

계정규모(만원)	빈도수	비율(%)
5000 미만	141	33.3
5000-9999	78	18.4
10000-19999	71	16.7
20000-49999	65	15.3
50000 이상	69	16.3
합계	424	100.0
교인수(명)		
50명 미만	159	34.2
50-99	80	18.2
100-199	63	14.3
200-499	75	16.7
500-999	36	8.2
1000명 이상	37	8.4
합계	441	100.0
건물평수(평)		
50 미만	4	21.7
50-99	24	21.4
100-199	125	20.5
200-300	197	10.8
300 이상	88	25.6
합계	434	100.0
교인경제수준		
상(上)	4	0.9
중상(中上)	24	5.5
중(中)	125	28.5
중하(中下)	197	45.0
하(下)	88	20.1
합계	438	100.0

자료 : 유장춘, 2000, 78

고려할 때 한국교회의 신도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매우 높은 헌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위한 비용은 매우 작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이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나 이웃을 돕고 싶은 열망보다는 다분히 구복(求福)적이고 율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③교회의 복지적 태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동기를 요구한다고 볼 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태도 유형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교인들의 낮은 호응도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다.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높은 동기와 협력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 낮은 동기와 수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에게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한국교회사회봉사조사연구」에서는 교인들이 소극성이 9.2%이었고 「사회봉사 총람」에서는 당회, 제직회의 소극성이 11.6%이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유장춘⁸⁴⁾의 조사에 응답한 목회자 중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27.4%, 조금 지지한다는 목회자가 56.5%로서 교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8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하다는 응답과 조금 비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9.2%와 6.0%에 나타났고 매우 비판적이라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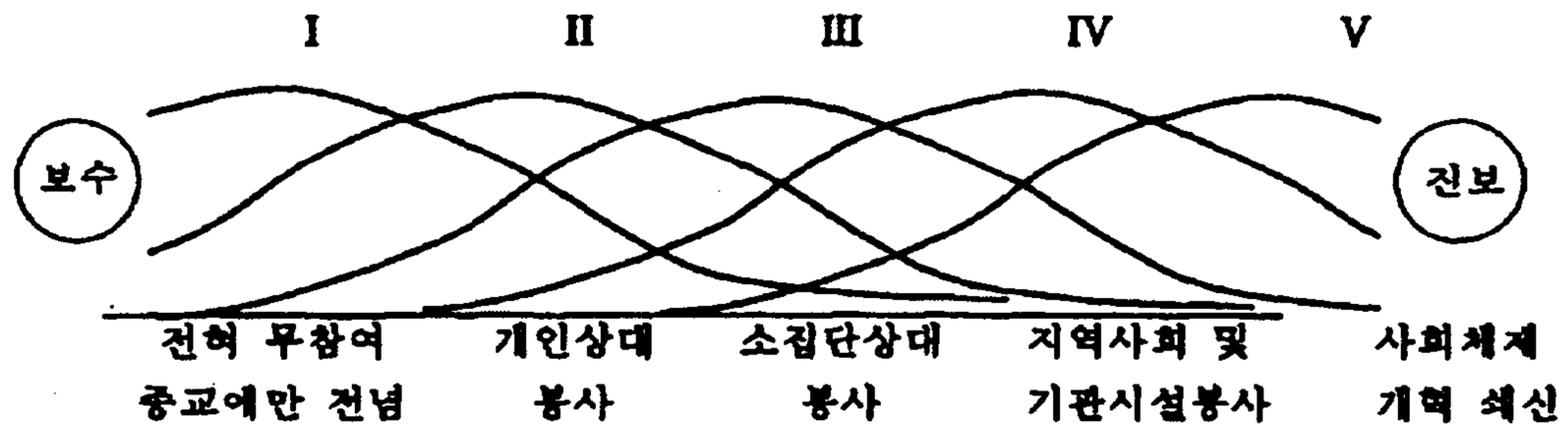
84)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9

인들의 무관심이나 반대 때문에 사회복지활동을 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교단체계

소속교단은 목회자에게 동료집단임과 동시에 사회체계 내에서 목회자들만으로 구성되는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목회 현장인 교회와 갖는 상호작용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를 향해서 영향을 주려하지만 교단을 향해서는 영향을 받으려한다. 목회자는 교회를 향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교단을 향해서는 정보제공을 받는 입장이 된다. 따라서 소속교단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은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그림 1] 교인 및 교단의 이념 정향과 교회사회봉사활동 양식⁸⁵⁾



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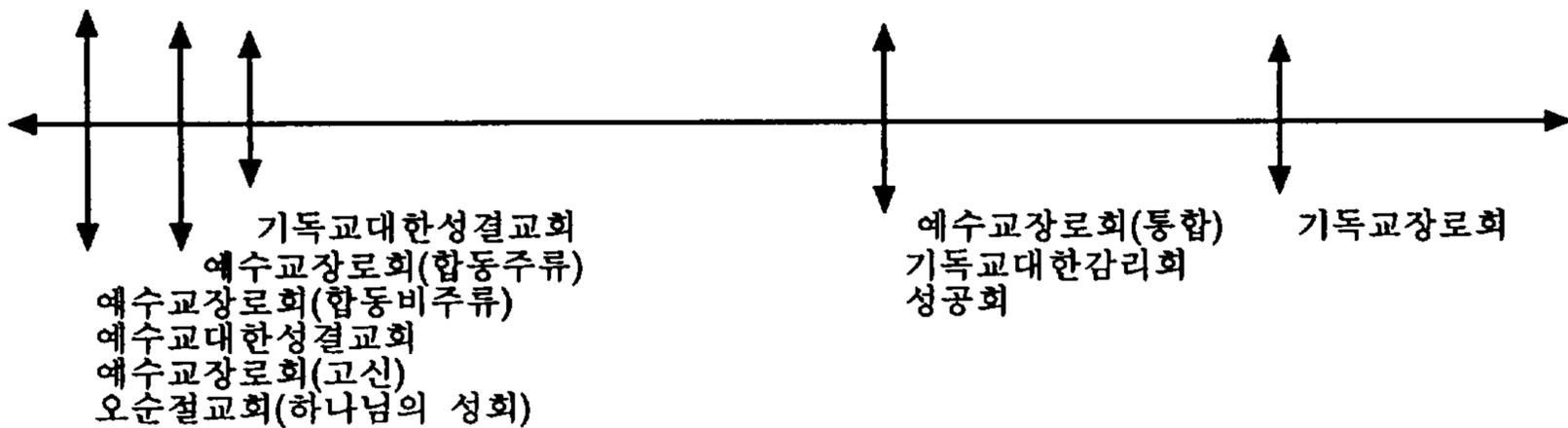
첫째는 교단의 신학적 특성이다. 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하나의 사

85) 박종삼(1987), 「한국의 개신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유장춘, 2000:25에서 재인용)

86)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회적 조직체로서 규모와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 표방하는 신학적 특징과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교단의 특징들은 각종 세미나와 집회, 교육, 홍보, 교단의 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림 2] 교단 신학과 사회적 태도⁸⁶⁾



교단의 신학적 특징과 교회사회복지 활동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로서 박종삼⁸⁷⁾은 교단의 신학적 노선에 따라 보수적 교단으로부터 진보적 교단까지 점차적으로 ㉠종교에만 전념, ㉡개인상대 봉사, ㉢집단상대 봉사, ㉣지역사회 및 기관시설 봉사, ㉤사회체제 개혁과 쇄신 등 이상 5개의 행동유형으로 나타나는 상이한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앙노선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치준⁸⁸⁾은 우리나라의 중요

86) 유장춘(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87) 박종삼(1987), 「한국의 개신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p.57

88) 노치준(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 민영사, p.95

한 교단들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를 양극으로, 사회적인 태도에서 사회참여와 개인구원을 양극으로 하여 하나의 표를 만들었다.

이러한 신학적 특징과 사회참여적 태도에 관한 연구로서 최무열⁸⁹⁾은 통합, 합동, 기장, 고신 등 4개 주류 장로교단의 사회적 태도를 조사하는 중에 한국교회의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활동과 봉사를 통한 장기적 전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기장의 경우 70.7%, 통합이 61.3%, 합동이 30.4%, 고신이 24.0%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교단에 소속된 회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가 교단의 신학적 태도와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는 사회복지활동지침이다. 예장 통합측에서는 교회의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사회부를 설치하고 사회봉사와 사회선교의 정책을 마련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으며 사회봉사의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단위의 사회선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하여왔다. 이와 같이 교단 차원의 노력은 개개의 지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교단이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적극적인일수록 목회자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교단체계의 복지관련특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단의 사회복지관련 전담부서가 있다는 목회자의 응답이 59.6%이었으나 없다는 응답도 40.4%나 되었다. 교단들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봉사지침이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있다는 응답은 60.5%로

89)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p.394

[표 6] 교단체계의 사회복지활동 관련 실태

복지관련 전담부서	빈도수	비율(%)
있다	263	59.6
없다	178	40.4
합계	441	100.0
사회봉사지침		
있다	267	60.5
없다	174	39.5
합계	441	100.0
사회봉사훈련프로그램		
있다	197	44.6
없다	245	55.4
합계	442	100.0
신학적 노선		
진보	116	26.3
보수	326	73.7
합계	442	100.0

자료 : 유장춘, 2000, p.82

없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여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사회봉사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는지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응답은 44.6%이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55.4%로서 교단의 사회봉사 훈련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단의 신학적 노선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목회자가 35.7%,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8.0%에 달하여 합계 73.7%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단의 신학적 노선을 보수적인 경향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26.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다수가 보수 편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4) 지역사회체계

지역사회는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인구가 자연적, 생태학적,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일련의 기본적 봉사기관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생활방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일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동체적 사회이다.⁹⁰⁾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는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지역성)과 사회적 단일성(공동의식) 및 문화적 동일성(공동규범)을 가지는 공동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개인의 정신적 현상이며 동시에 삶의 현상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생각과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상황은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은 결국 교회의 이웃이 되는 지역주민들을 향한 관계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징들이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어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연결되는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교회의 지역사회체계에 대한 실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관의 수와 문제의 심각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관이란 사회복지기관과 공공시설, 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의 기관들 중에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이 주민 및 시민단체였고 복지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관의 실태는 5개 이하가 28.9%이었고 6기에서 10개는 41.8%로 가장 많았다. 11개에서 15개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20.3%이었으며, 16개 이상은 모두 9%이었다.

90) 이원규(1994),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 기독교문사, p.152

[표 7] 지역사회 사회기관 수와 사회문제 정도

	빈도수	비율(%)	
지역사회 사회기관 수			
0-5	125	28.9	
6-10	181	41.8	
11-15	88	20.3	
16-20	32	7.4	
21-27	7	1.6	
합계	426	100.0	
지역사회문제			
	항목별(평균)	전체적	항목별(평균) 전체적
매우 심각하다	18	6	4.2 1.4
비교적 심각하다	125	244	28.9 56.1
별로 심각하지 않다	254	174	58.8 40.0
전혀 심각하지 않다	35	11	8.1 2.5
	432	0	98.4 0

자료 : 유장춘, 2000, 83

다음으로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실태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매우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고 느낀 목회자는 전체의 33.1%에 불과했으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매우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고 느낀 목회자는 57.5%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해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 느낌은 비교적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2.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

본 조사는 1998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4,933개 교회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9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한 이만식⁹¹⁾의 선행자료를 이용하였다.

91) 이만식(2000), 「교회의 사회봉사 : 그 실태와 대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

1) 교회의 주요 특성

[표 8] 설립 연수

	빈도	백분율
10년 이하	109	18.3
11 - 20년	111	18.6
21 - 30년	78	13.1
31 - 40년	72	12.1
41 - 50년	105	17.6
51 - 60년	27	4.5
61년 이상	94	15.8
합 계	596	100.0

자료 : 이만식, 2000, p.23

무응답 : 2Cases

교회가 설립된 연수는 평균 35.40년으로 11년에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18.6%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하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18.3%로 나타나 20년 이하의 교회가 전체의 36.9%나 되었으며, 61년 이상된 교회 15.8%를 포함하여 41년 이상 넘는 교회는 3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교회의 교인 수는 평균 847명이었으며, 10만명 이상 되는 곳에서부터 5명에 불과한 곳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교인 수는 30명 이하의 교회가 18.0%, 31명 이상 50명 이하인 곳은 12.8%로 나타나 30.8%가 50명 이하인 작은 교회였으며, 50명을 초과하여 100명 이하인 교회가 20.0%, , 100명을 초과하여 300명 사이인 교회가

회부

22.3%, 500명을 초과하는 교회도 1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63.7%이었으며, 교육 및 사회봉사 겸용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8.4%, 교회묘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20.2%나 되었다. 전용 사회봉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6.6%에 불과하였으며, 수양관(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7.9%에 불과했다.

[표 9] 교회의 부대시설 현황

	빈 도	백 분 율
전용 교육관	249	63.7
교육 사회봉사 겸용관	111	28.4
사회봉사 전용관	26	6.6
수양관 (기도원)	31	7.9
교회 묘지	79	20.2
기타	49	12.5
합 계	545	139.4

자료 : 이만식, 2000, 29

무응답 207Cases, 391명 응답

교회 외부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교인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5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없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 하는 교인이 있는 곳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교인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평균은 15.3%이었고, 5명 이하가 47.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1명 이상 활동한다라는 응답도 20.8%나 되었고, 6명 이상 10명 이하는 18.7%,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13.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인과 비교할 때, 기독교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세가 보다 적극적이라는 의견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적극적이라는 의견도 13.6%로 나타나 75.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소극적이다 12.6%, 매우 소극적이다 2.9%로 부정적인 평가는 15.5%에 불과하여 대체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10] 기독교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견해

	빈 도	백 분 율
매우 적극적이다	80	13.6
적극적이다	365	62.0
비슷하다	53	9.0
소극적이다	74	12.6
매우 소극적이다	17	2.9
합 계	589	100.0

자료 : 이만식, 2000, 39

무응답 : 9Cases

기독교인이 非기독교인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생

[표11]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이유

	빈 도	백 분 율
성경말씀에 따라	270	57.7
교역자의 가르침으로	33	7.1
전도의 방법으로	86	18.4
사회 의식이 높아서	79	16.9
합 계	468	100.0

자료 : 이만식, 2000, p.41

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468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57.7%가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非기독교인을 전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4%로 나타나 성경에 근거를 둔 이유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회와 노회 및 총회 사회부와의 관계

지난 해 교회가 속한 노회 사회부와의 협조 정도에 대하여 15.5%가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답했고 57.5%가 전화나 공문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73.0%가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6.4%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0.6%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27.0%만이 비교적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회부의 諸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북한동포 돕기 등 구호사업의 경우 잘 안다는 응답이 65.3%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봉사주일도 59.4%가 뉴스레터 「교회와 사회」도 54.1%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문제 대책활동으로 20.1%로 나타났으며,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3.0%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회 재정

1998년 교회의 본 재정⁹²⁾의 연말 결산액은 평균 209백만원이었고, 2

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3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21.2%나 되었다. 2천만원 이하도 19.1%로 다소 높았으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14.9%로 나타났다.

1998년 본 재정의 연말 결산액 중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평균 215십만원으로 나타났다으며, 100만원이하로 지출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를 지출한 경우도 20.2%로 나타났으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19.2%로 나타났다.

교회의 본 재정 중 어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구제 및 사회봉사비의 비율인가라는 질문에 평균 17.5%라고 응답하여 실제 지출하고 있는 봉사비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재정 대비 봉사비의 비율이 6%에서 10%이하

[표 12] 총 재정 중 구제 및 봉사비의 비율

	빈도	백분율
0%	1	0.3
20% 이하	62	16.2
5% 이하	110	28.7
10% 이하	133	34.7
20% 이하	52	13.6
30% 이하	15	3.9
30% 이상	10	2.6
합 계	383	100.0

자료 : 이만식, 2000, 54

무응답 : 215Cases

92)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교회 전체 예결산을 의미, 총재정은 본 재정을 포함한 교회 모든 기관의 예결산 합계를 의미함

가 되어야 한다는 목회자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6%에서 20% 이하가 20.1%, 21%에서 30%이하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본 재정 중 구제비 액수, 총 재정, 총 재정 중 구제비의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본 재정 중 구제비의 비율은 커지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구제 및 사회봉사 비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에 구제 및 사회봉사를 위해 특별헌금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85.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5%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교회들이 특별헌금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목적으로 특별헌금이나 모금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1개 교회 별 평균 3.45개의 목적을 열거하였는데, 그 중 수해구호 헌금이 77.7%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동포돕기 헌금이 55.8%, 직접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 위한 헌금이 50.7%로 나타나 다른 목적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장학사업을 위한 경우가 39.5%,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방문 및 지원이 33.1%, 실직자 돕기 헌금이 30.5% 등으로 나타났다.

5) 목회자의 견해

교회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경우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으로 는 70.8%가 교회의 형편상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34.6%의 응답자가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표 13] 사회봉사의 어려움

	빈도	백분율
교회형편상 재정 부족	407	70.8
지식과 노하우 부족	110	19.1
시설 및 공간 부족	199	34.6
당회와 재직회가 소극적	79	13.7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16	2.8
필요성을 못 느낀다	5	0.9
기 타	22	3.8
합 계	828	145.7

자료 : 이만식, 2000, p.58

무응답 : 23Cases

19.1%로 나타났다.

한국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한다면, 그 사업의 우선 대상은 어떤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에 63.2%가 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2.5%가 장애인, 27.2%가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특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사회복지사업의 분야

	빈도	백분율
영·유아	95	16.3
아동	52	8.9
청소년	211	36.1
노인	369	63.2
여성	24	4.1
장애인	248	42.5
특수소외계층	159	27.2
합 계	1158	198.3

자료 : 이만식, 2000, p.68

무응답 14Cases, 548명 응답

기독교 단체 이외의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등의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48.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7%가 없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공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자들 중 72.8%가 채용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13.7%가 채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채용 중인 교회는 4.9%, 채용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표 15] 사회복지 전공자 채용 의사

	빈도	백분율
현재 채용 중이다	28	4.9
채용을 고려 중이다	49	8.6
현실적으로 어렵다	415	72.8
채용할 생각 없다	78	13.7
합계	570	100.0

자료 : 이만식, 2000, p.80

무응답 : 28Cases

주일 대 예배 중 「이웃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28.5%가 분기당 1회 정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0%가 월 1회 정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매주 한나라는 응답은 8.9%나 되었으나,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응답도 17.4%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구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주장에 매우 동의하는 목회자의 경우 이웃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설교를 거의 매주 한다는 비율이 13.7%나 되었으며, 이는 동의하는 목회자의 4.9%, 동의하지 않는다는 목회자의 2.7%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고, 월1회 정도 한다는 비율도 34.2%로 동의하는 목회자의 23.0%, 동의하지 않는다는 목회자의 16.2%에 배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선교와 사회봉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하여 60.0%가 개인선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0%가 사회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선교와 사회봉사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변은 교회의 소재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의 경우 66.3%가 개인선교를, 중소도시는 65.7%가 개인선교를 선택하여 개인선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군·면·읍 지역은 50.6%가, 도서지역은 53.3%가 개인선교를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 개인선교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교회가 사회봉사를 더 중요시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어 매우 뜻밖이었다.

구제와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48.1%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45.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93.7%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6.3%에 불과하였다.

[표 16] 교회의 사회봉사에 참여 정도

	빈 도	백 분 율
매우 많이 참여한다	37	6.3
많이 참여한다	130	22.2
조금 참여한다	273	46.7
매우 조금 참여한다	145	24.8
합 계	588	100.0

자료 : 이만식, 2000, p.91

무응답 : 13Cases

응답한 교역자의 교회가 사회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는데,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3%에 불과하였으며, 많이 참여한다는 응답도 22.2%에 불과하였으며, 반면에 조금 참여한다는 46.7%, 매우 조금 참여한다는 24.8%로 나타나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의 사회봉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에 대하여 55.7%가 조금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1%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63.8%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30.1%가 많다, 6.1%가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36.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17] 교인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빈도	백분율
매우 많다	36	6.1
많다	177	30.1
조금 있다	328	55.7
없다	48	8.1
합계	589	100.0

자료 : 이만식, 2000, 94

무응답 : 9Cases

응답한 교역자의 교회에 사회봉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31.7%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8.3%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회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88.2%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1.8%만이 필요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회차원에

서 전문가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6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0.4%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8] 빈곤의 원인

	빈도	백분율
부모의 가난	91	15.8
저학력의 기술부족	76	13.2
질병, 장애	80	13.9
실직	155	27.0
잘못된 생활습관	388	67.5
피부양자의 과다	13	2.3
빈약한 정부보조	80	13.9
노령	36	6.3
과다한 자녀교육비	193	33.6
모자세대의 과다	15	2.6
합계	1,127	196.0

자료 : 이만식, 2000, p.100

무응답 : 23Cases, 575명 응답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575명이 1127개를 응답하여 1인당 1.96개정도 응답하였는데,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67.5%가 잘못된 생활습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3.6%가 과다한 자녀의 교육비를, 27.0%가 실직을, 15.8%가 부모의 가난을 꼽았다.

향후 교회에서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273교회가 교회당 평균 1.77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시설, 교도소 등을 방문하는 방문지원사업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42.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38.5%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교회들의 경우 아동복지 프로그램 선택율이 각각 45.2%와 45.5%로 나타나 군·면·읍 소재 교회의 선택율 32.7%, 도서지역 교회의 선택율 25.0%에 배하여 높았으며,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대도시 소재 교회들의 48.7%로 중소도시 교회들의 37.5%, 군·면·읍 교회의 25.5%, 도서지역 교회의 1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방문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인수가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인수가 300명 이상인 교회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지원 활동을 선택한 경우 30명에서 50명 사이의 교회가 가장 많았으며, 100명이 넘는 교회들은 70%대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장애인 프로그램의 경우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 중 18.2%가 희망하고 있어 다른 교인수의 교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제2절 교회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

1. 목회자의 사회복지실천의지의 결여

앞장의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목회자들 개개인의 사회복지와 사회참여의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측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적극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일반 대중의 인식확산과 목회자의 실천의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회복지활동의 관심을 점차 사업전개로 유도할 방안 강구로 목회자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예산의 약 10% 내외의 사회복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목회자들은 56%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재정은 많은 곳에 골고루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곳의 재정은 회생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어느 곳에 자신의 우선권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재정의 배분문제는 목회자의 의지와 철학이 반영되며 결국 자신의 목회의 목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회복지의식에 부합하는 사업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회 내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에서 펴낸 「교회와 사회봉사」에 의하면 교회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경우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으로 는 70.8%가 교회의 형편상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34.6%의 응답자가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19.1%로 나타났다.

장금석⁹³⁾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93) 장금석(2001),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

있어서 어려움으로 재정부족(35%), 시설부족(20%), 전문지식부족(18%), 제직인식부족(14%), 목회자 인식부족(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기원 교수의 연구조사⁹⁴⁾에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재정부족(44.5%), 시설부족(14.6%), 전문지식부족(13.3%), 목회자 인식부족(8.8%), 교인호응부족(8.7%), 제직인식부족(5.4%), 번잡한 절차(2%), 주민호응부족(1%)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결국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재정과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외형상으로나 질적 측면에서 보거나 여타 사회단체에 비하여 막대한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여전히 저해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각종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내부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교회 사회복지사업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선 재정문제를 보면, 교회의 재정부족이 사회복지활동의 가장 저해 요인이 된다고 다수가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분석결과를 보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의 재정 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재정 능력을 나타내는 총예산, 교인 수, 교인의 생활수준 등의 변수는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활동비의 비율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교회의 존속 기간이 길면 총예산은 증가하는 방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비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존속

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94) 김기원(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p.107

기간이 짧아 총예산이 작은 교회일수록 사회복지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에 있는 것이다.

시설자원 부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시설은 주로 예배와 선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회복지활동의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사회복지활동은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 밖의 다양한 사회사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자원의 부족은 사회복지 부진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인적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인적 자원의 통계가 불일치하여 정확한 수의 측정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종교인구의 25%에 가까운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전과는 달리 성도들의 의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막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⁹⁵⁾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의 보유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개에 있어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여타 사회단체 및 개인에 비하여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과 함께 교회라는 시설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효율성 확보에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회시설의 개방이

95) 민진홍(2000),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요청되는 것이다.

3.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부족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년인구의 증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적, 포괄적 프로그램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도 시설방문이나 지원사업, 장학사업, 이재민과 수재민 등 일시적이고 단순구호적인 사업들과 어린이 선교원, 유아원 등 선교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료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속성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이나 노동상담 같은 진보적 프로그램은 별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금석의 연구조사⁹⁶⁾에 의하면 교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목회자의 응답이 아동복지가 23명(23%), 청소년복지가 13명(13%), 여성복지가 5명(5%), 노인복지가 40명(40%), 장애인복지가 19명(19%)으로 나타났고,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설립하기를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시설이 3명(4%), 어린이집이 11명(16%), 양로시설이 16명(24%), 종합사회복지관이 28명(4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통합 복지프로그램이

96) 장금석(2001),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표 19] 복지분야별 교회운영 사회봉사 프로그램

복지 분야	구체적인 사업내용
아동복지(286)	선교원(137) 유아원·유치원(93) 어린이집·놀이방(43) 공부방(8) 농번기탁아소(4) 보육원(1)
청소년복지(62)	공부방(27) 장학사업(15) 기숙사(8) 야학(3) 독서실(3) 계절학교(4) 문화교육(1) 중고등학교(1)
부녀복지(25)	주부교실·주부대학(22) 직업훈련·취업알선(1) 모자원(1) 기타(1)
노인복지(97)	노인대학(65) 경로잔치(17) 양로원·요양원(10) 급식프로그램(2) 경로당(1) 노인부업알선(1) 재가노인봉사(1)
장애인복지(11)	장애인예배(5) 사회재활훈련(3) 상담(1) 취업알선(1) 장애인수용시설(1)
의료·정신의료(23)	무료진료(14) 나병환자사업(3) 보건위생·방역(2) 이·미용봉사(1) 재활시설(1) 병원봉사(1)
교정복지(4)	재소자 서비스(4)
지역사회복지(102)	신협(20) 주민도서관(17) 시민대학(16) 농수산물공동구매(12) 주민초청잔치(6) 마을소식지(5) 소득증대사업(4) 무료급식(4) 바자회(3) 인권·사회운동(3) 영농교육(2) 교회시설개방(2) 공중목욕탕(1) 중고품교환(1) 종합복지관(1) 직장인예배(1) 결혼교실(2) 기타(2)
상담서비스(3)	가족상담(2) 노동상담(1)
특수선교(6)	공원선교(2) 도시빈민선교(1) 노동선교(1) 선교원신학(2)

자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P.351

부족한 상태에 있는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사회복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활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4.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소형화 문제

한국교회는 10년 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교회 사회복지에 대한 본질적 사명으로서의 인식도 소폭으로나마 발전되었다. 또한 사회봉사비의 이상적인 지출비율도 본 재정의 약 17%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에 대한 '98 한미준-한국 갤럽 조사보고서⁹⁷⁾에 의하면, 헌금의 우선 사용처에 대한 인식에서도 교회운영, 유지(46.1%)에 이어 사회봉사, 구제가 28.4%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비 지출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복지활동의 부진 요인으로서 재정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실천적인 의식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와 몰량주의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교회주의이다.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의 인적·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 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을 말하며,⁹⁸⁾ 몰량주의란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物)과 수치로써 측정할 수 있는 것(量)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⁹⁾

한국에서의 교회조직은 자원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는 한

97) 98'한미준-한국갤럽조사보고서, 「빛과 소금」, 11월호, pp.22-37

98) 노치준(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 민영사, p.32

99)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 한울, p.98

국 사회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유지에 대한 노력과 물량주의는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인데, 한국교회는 신흥종교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제1의 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체 조직유지 및 확장 그리고 물량주의에 빠져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찍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이른바 자급(自給), 자치(自治), 자전(自傳)을 근간으로 하는 네비우스 정책이 교회조직 운영의 원리로서 이어져 왔다.¹⁰⁰⁾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교회조직의 안정화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외형적이고 양적인 확대를 우선시하는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교회주의와 결합된 물량주의는 모든 교회내의 자원을 교회 내부로 집중시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물적 자원을 예배당 건축→사택 건축→선교관 건축→기도원 건축→묘지 건립 등의 순서로 끝없이 교회 내부에 투자하게 된다. 또한 규모가 확대된 시설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 결과 신도들의 내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교회의 사회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사회봉사의 영역에는 별로 물질적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¹⁰¹⁾

한국교회의 개척교회 증가와 소형화 현상도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100)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 한울, p.103

101) 노치준, 상계서, p.107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꾸준히 신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도 수의 정체 혹은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3년과 1994년의 경우, 중요 교단의 신도 증가율이 1%에도 채 이르지 못하는 제로성장을 나타내어 실질적인 감소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⁰²⁾

이러한 신도 수의 정체 혹은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교회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1990년대 한국교회의 또 다른 특성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1990년 35,706개의 교회가 1995년 58,046개의 교회로 늘어나 62.6%의 증가율을 보였다.(문화체육부, 199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2).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척교회의 증가를 의미한다.

개척교회의 증가는 곧 한국교회 전체에 있어서 소형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규모를 1995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근거로 신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교회당 약 151명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8,760,336명의 신도와 58,046개 교회). 이것은 불교의 1개 사찰당 893명의 신도(10,321,012명의 신도와 11,561개 사찰), 천주교 1개 본당의 2896명의 신도(2,950,730명의 신도와 1,019개 본당)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¹⁰³⁾ 더욱이 이 숫자도 소수의 대형교회에 수천 명 이상의 신도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평균적인 교회들의 규모는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의 중심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통합측의 통계를 살펴보면, 등록된 성인 신도의 수가 50명 이하인 교회가 47.0%, 51-100명이 19.0%, 101명-300명이 19.5%, 301-500명이 5.5%, 501-1000명이

102)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 한울, pp.61-62

103)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 문화부, p.7

4.5%, 1001명 이상이 3.5%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⁴⁾ 등록교인 100명 이하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2/3에 해당하는 66.0%에 이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신도가 50명 이하가 되면 교회의 경제적 자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50-100명 사이의 신도를 가진 경우는 교회의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활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개척교회 난립과 소형화 현상은 조직의 속성상 더욱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승하여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1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p.318

제4장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 방안

1. 목회자 사회복지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

본 연구가 단순히 일반 성도나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목회자들의 복지의식을 조사한 것은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특히 의사결정과정과 사업실천의 실제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차지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사회복지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영향보다는 목회자의 영향이 훨씬 강하며, 이러한 교회의 구조를 감안할 때 목회자의 복지 의식 변화는 곧 교회전체의 대 사회복지 인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의식과 행동이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과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목회자의 의식전환은 성도들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꾀할 뿐 아니라 사회 속의 통전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회자들의 복지 의식은 완전하게 고착되지 않았거나 형성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범에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와 함께 걸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가 97년 11월 26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21세기를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독교의 복지참여 실태조사' 내용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7개 교단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총 1531개 교회를 교단별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한 결과를 보면 목회자의 85.9%가 교회에서 구제와 사회봉사를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으나 교회의 사명인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대해서 '활발하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하였고, 57.1%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었다. 즉,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질적 사명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비율은 저조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목회자의 사회복지 참여의식과 태도의 문제점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의식은 있으나 참여나 봉사의 실천면에서의 의식 그리고 시설 및 재정적인 배려가 부족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사회봉사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회지도자나 평신도들은 사회봉사를 당연한 선교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의 요청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회 여력의 성장, 다양한 실천사례의 축적 등 풍부한 잠재적 자원들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회 봉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을 목회자의 의식에 따른 지도력이라 할 때 이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내에 사회복지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기성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및 자문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선교적 전망 안에 포괄하는 신학적 노력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의식을 고취하고 목회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목회자의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교회와 교단에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및 봉사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고 가능한 많은 횃수를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의식 분위기를 고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회자 자신이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적 지식을 분명히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의 사회복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회 내에 사회복지부서를 창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육과 행정 및 연구를 지원하여 사랑실천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완수하여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교회 진면목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타 교회나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나 발표회에 참여시켜 최신 정보와 전문기술 및 연구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교회는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신학교육 기관에서 사회복지학과의 증설도 필요하지만, 신학교육 과목 중에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전공필수로 하여 필히 이수토록 하고 사회복지 연구기관이나 대학원에 지원을 권장함은 물론 신학교 내의 신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교과내용을 교류하고 학문적 접목을 통하여 기독교적 사회복지학풍을 정립하며 많은 연구와 자료

를 책으로 발간하여 쉽게 얻을 수 없는 사회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중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의 기회를 넓혀줘야 하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장해야 하는 한편,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교회가 유기체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존립할 가치 여부가 제기됨을 인식하고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에 더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고유한 기독교적 사회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종교와 복지의 공통적인 목표인 평등과 행복의 밝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선교 목사제도를 도입하고 팀목회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는 일과 함께 여건이 허락하는 교회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 효율적인 복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교회 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1) 재정구조개혁을 통한 사회복지비의 확충

교회공동체는 그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야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탄식과 슬픔이 있는 사람,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필요충족과 대인 제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자원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명분 있는 지원, 과

감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재화서비스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교회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수한 사회봉사비로 책정한 예산은 불과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전시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 교회의 봉사는 권위주의적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때,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봉사를 위한 무한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재정의 새로운 개편이 요구된다.

이만식의 연구조사 결과¹⁰⁵⁾에 따르면, 교회총예산 대비 사회복지활동비는 10% 미만이 목회자들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6%의 목회자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의 35%가 재정부족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곧 목회자들이 사회복지비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의 사회복지의 과제는 역시 인적, 시설적 자원을 지역복지에 동원함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자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교회공동체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은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 문제의 개입과 접근성 제고를 요청하게 된다. 교회공동체의 대 사회적 서비스를 향한 재화의 사용은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안정감,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함께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한 동기부여로 나아

105) 이만식(2000), 『교회의 사회봉사 : 그 실태와 대안』,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p.51

가게 될 것이다.

2) 교회시설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회시설은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주로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의 시간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나 기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IMF 경제 위기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특기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을 복지시설, 초등학교, 종교시설, 구립·민간보육시설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157개소에서 5,025명이 보육되고 있다.

또한 영육아보육법 규정(방과후 교실은 아동 1인당3.63㎡의 시설면적을 확보해야 함)에 미달되는 시설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방과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와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정부의 지원 없이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극복연대, 카톨릭선교회 등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방과후 공부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또는 결손가정의 학습부진아동으로 초등학생이고, 재원은 후원

금 및 기부금, 종교단체의 보조, 공공근로 등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시설환경은 대부분이 종교시설 무상사용, 임차건물, 가건물 등이다.

[표 20] 방과후 교실 및 이용아동 현황 (2000년 9월 현재)

구분	합계	초등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구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시설수(개소)	157	35	29	23	37	28
반수(반)	168	36	31	31	40	36
정원(명)	5,025	970	1,042	1,076	1,165	772
현원(명)	3,912	836	848	851	844	533
비율(%)	77.8	86	81	79	72	69

자료 : 장금석, 2001, p.77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볼 때 교회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에 교회가 보다 적극적일 뿐 아니라 교회사회 복지활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할 때, 예배위주의 공간이 아닌 다목적 용도로 공간을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회자를 사회복지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교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지지적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지지적 인식을 가진 교인들의 영향이 확대되게 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 첫 번째 방안은 교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넷과 홍보물, 기획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현대의 마케팅 기술

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교회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성공을 예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인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목회에 임할 수는 없다. 당회나 제직회, 혹은 각 기관이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교회가 이제는 교인들이 참여한 팀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역원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구역헌금을 봉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봉사의 영역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구역별이나 혹은 몇 개의 구역을 묶어서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 거택보호자, 노인정 등 구체적인 봉사의 현장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사회를 향해 나아가되, 교인이 전문화된 각 분야의 목회자들을 통해 훈련받고 상담하며 현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인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길 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서로가 동역자로 인식함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개에서 요청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향상, 사회복지요원배출노력,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무의탁자와 성도와의 결연 추진 및 사회사업가와 목회자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교화(教化) 등 영적 교정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회가 인적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봉사훈련 교육과 적재적소 배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그 동안은 대개의 개별교회가 전도에 치중하여 선교활동에만 주력 하였으나, 점차 사회복지활동에의 관심고조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사회복지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꾀하고 있는 것은 향후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의 자원을 바탕으로 철저히 계획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증폭되어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데, 다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구빈적 사업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에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자주적 사회복지의 실현과 함께 국가정책 및 제도의 보완,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그 활동영역을 극대화하고, 효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회는 그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을 부담하는바, 구제와 노력봉사를 통한 사회봉사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혁을 꾀하는 사회행동을 통해, 기독교 본래의 사명완수가 가능하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경건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봉사 및 사회행동책임을 통해 이를 완성할 수 있다.

교회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교회의 여건,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 농촌, 도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총회적, 노회적, 개교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알맞은 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총회차원에서의 활용방안

총회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사업가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장 실무자 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운영상의 기술지원, 지역사회 주도적인 동기유발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목회자들에게 교단에서 사회복지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몇몇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주로 봉사신학에 대한 강연이나 사회봉사를 통한 교회갱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을 경험하게 하거나 목회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훈련시키는 예는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이 일을 주도하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사회복지 전문인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을 사회복지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단차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이어야 하겠고 목회자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훈련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실시되어야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사회복지를 주제로 하는 예배의 기획이나 설교문 작성요령, 교회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의 확대를 위한 방법, 전교인의 자질을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체제의 구축방안, 교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사업 방법, 교회의 사회복지 법인설립을 위한 정보제공,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

한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그 사례 제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2) 노회 차원에서의 활용방안

각 노회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노회지도력 보장, 지교회를 위한 확고한 노회정책확정, 사회개발을 위한 지교회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노회 소속의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적 인력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노회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교회 사회복지 협의회 등 정책협의를 위한 사업, 노회 지도자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업, 재해발생 구호 및 복구사업 참여, 지역 내 출소자, 매매춘 여성, 비행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들, 자활선도사업, 무의탁노인이나 환자 구호활동을 위한 자선구호사업, 구속자 대책활동, 법률상담 활동 등 인권옹호활동, 지역사회의 공해대책 등 주민 권익옹호 활동이 요망된다. 또한 지교회의 활동 중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특별지원, 시범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조직적으로 훈련하여 활동하게 한다.

3) 교회차원에서의 활용방안

지교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그 유형 면에서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¹⁰⁶⁾

106) 김만두(1982), 「현대사회복지총론」, 서울 : 홍익제, p.55

[표 21]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시 교회	대형 교회	노숙자쉼터, 직업알선, 실직가정지원센터, 실직자 가정 급식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장학사업, 청소년 상담, 탁아시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신문제작, 근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야간학교, 가출아동 공동체 건립 및 운영, 소년소녀가장돕기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금연캠페인, 결식아동 도시락 보내기, 청소년 컴퓨터지도, 무료직업상담, 산업시찰 및 역사탐방, 장애인 그룹홈 운영, 노인관련출판물 제작, 농촌의료봉사, 시민대학, 생활문화상담 등
	중형 교회	노숙자 급식보조, 실직자 직업알선 사업, 실직자가정 자매결연, 비행청소년 상담지도, 불우청소년 지도, 어린이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무의탁아동 돌사진 찍기, 빈곤여성 한글교육, 장학사업, 독거노인 호도관광,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재활전화상담, 반찬지원, 이·미용, 중고제품 재활용품 분리보관, 베품시장, 무공해농산물 애용하기, 중증장애인 나들이 보조 등
	소형 교회	사회안전망 연결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시설방문, 불우청소년 결연, 요보호여성 말벗하기, 노인에게 안부전화걸기, 독거노인 가정결연, 가사활동지원, 후원자 개발관리 보조, 노인정방문 등
농촌 교회	귀농지도세미나, 귀농자 자매결연사업, 무공해농산물애용하기 도농직거래를 위한 도시교회와의 연계, 주민토론회, 소비자문제 상담, 소비자협동조합, 수해복구지원, 무료진료, 마을잔치지도, 어린이집운영, 농촌활동지도, 자연학습장만들기, 지역신문제작, 환경교육, 노인에게 안부전화걸기, 독거노인 가정결연, 독거노인 호도관광,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노인목욕보조, 노인장례지원, 수지침진료, 장애인 외출보조, 환경감시, 중고제품 재활용운동, 재생비누만들기, 청소년 지역봉사활동 등	

자료 : 조홍식(2001), 「교회사회복지론: 위상과 실천과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편, 「총회사회부 정책협의회 및 사회선교지도자훈련」, p.84

첫째, 대인관계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결연 및 위탁사업, 입양사업, 모자결연사업, 아동 및 가정복지, 장애인 노인문제, 질병과 법률상담 등이다.

둘째, 사회보호적 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및 시설사업을 위한 아동복지, 시설·직업보도를 위한 모자복지, 야간학교, 청소년상담, 집단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복지사업 등이다.

셋째, 사회 행동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운동 및 캠페인, 노인대학, 주부대학, 각종 공해추방운동, 사회복지기금모금운동,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이상과 같은 모형들을 또다시 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농촌형으로는 “사회보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 행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시형으로는 대인관계적인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외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지역교회의 연대강화

한국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개척교회운동은 미자립 교회의 난립을 초래하면서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운동을 통하여 교세를 확장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 수 증가에 비해 교인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교회의 공신력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 국토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 예수가 구현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섬김으로써만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하는 것은 한국교회복지활동의 부진을 극복하고 활성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집단으로서 교회내부의 기능과 함께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행동의 주요한 단위가 된다. 제도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순한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시대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교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상황 속에서 사회복지활동은 실제적이고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사회의 필요에 개방적으로 응답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역교회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동질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희생자들을 발견하기가 쉽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다양하므로 그들로부터 주민들의 욕구와 봉사사업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교파는 사분오열되어 교회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지경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규모를 볼 때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신도가 100명이 못되는 소형교회들이 80% 가까이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교회가 교회조직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총회나 사회수준에서는 신앙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연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인적자원이나 물질 자원이 열악한 소형의 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할 때 지역사회 안의 복지적 요구를 훌륭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¹⁰⁷⁾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천군 지역에는 다양한 교파들의 교회가 40여 개 있다. 그러나 그중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신도 50명이 채 안되는 소형교회로서 자체유지에도 힘겨운 교회들이다. 그러나 지역의 교회가

107) 서대석(2000), 「한국교회사회봉사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사회의 매주 15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100여 명에게 매주 1회 1주일 분의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을 훌륭히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화천군의 면적이 넓고 노령인구가 많아 개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 교회가 협력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조리봉사대, 배달봉사대를 조직하여 분담함으로 수혜 받는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적인 봉사로 인정받고 있다.

화천지역은 교육·문화적인 취약지역으로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의 시설이나 재정 그리고 젊은 인력이 부족한 각 교회의 처지에서 목회자 혼자 교회의 모든 일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개교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화천 지역에서는 12교회가 연대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각 교회의 청소년부를 연합하여 화천 청소년 선교회를 조직한 것이다. 화천 청소년 선교회는 각 교회의 청소년부를 위한 예산을 각 교회의 재정 수준에 맞추어 공동예산으로 모으고, 각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담당 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연합으로 예배와 교육, 문화, 체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물론 청소년 문제를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화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개교회주의를 타개하고 개교회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개교회의 사회봉사비 및 구제비를 한데 모아 공동금고를 마련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에 공동대처를 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교회

의 본질적 사명인 사회봉사의 부진을 씻고, 세상을 섬기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준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관들은 교회의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회와 매우 분리된 상태에 있다.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적으로 교회와 근접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와 실천 현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회봉사가 활성화 될 때 가장 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기관들은 교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회자신의 성장과 사역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자원개발과 홍보,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복지기관은 목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계를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목회자는 지역의 기관들과 교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적극적인 협력은 교회를 지역사회로 개방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교회로 개방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한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지역에 대한 교회의 폐쇄성과 보다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더 큰 문제라 본다. 목회자는 이 중간자적인 사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회의 연계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제 5 장 결 론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동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IMF 구제금융기를 맞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오늘날에는 교세확장에 급급할 뿐 사회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 사회복지계에서 활동하는 신자의 수나 시설운영의 수, 그리고 재정지출의 면에서 사실과 다른 면이 없지 않으나, 한국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아픔을 함께 하며 성장하여 오늘날 한국 제1의 종교로 자리잡은 한국교회가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면 옳을 것이다.

교회 사회복지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활동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선한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복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교회의 기원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성격상 두 가지 형태로 수행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와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회봉사가 그 중심내용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목회자를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곧 목회자의 의식과 행동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사회문제에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며,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일, 즉 나눔과 섬김의 삶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사회봉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위한 측면에서는 교단의 신학적 특성과 교회의 복지자원, 그리고 교인들의 복지의식과 목회자의 생태체계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는 재정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많은 증가를 보여왔던 한국교회의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볼 때 교회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하는 목회자의 사회복지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목회자의 사회복지실천의지의 결여와 함께,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선교라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교회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척교회의 증가에

따른 교회의 소형화 현상은 조직의 속성상 더욱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승하여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회자들의 복지 의식은 아직 고착되지 않았거나 형성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는 교회사회복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겠다. 첫째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과 신앙의 성장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해 왔으나 이제는 사회복지를 주제로 하는 설교의 횟수를 늘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면화된 신앙을 표면화시키는 필연적인 설득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교인들에게 자원봉사에 임할 것을 권면하고 구체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대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지원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의 사회복지적 신념을 교회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의 이러한 노력은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도들의 목회자의 의도를 구체화 시켜야 할 영역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적·시설적 자원을 지역복지를 위해 동원함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자원의 참여가 요구되며, 교회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할 때 예배 위주의 공간이 아닌 다목적 용도로 공간을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도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성공을 예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요원배출노력,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무의탁자와 성도와의 결연 추진 및 사회사업가와 목회자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교화 등 영적 교정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교회의 여건,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총회적·노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알맞은 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동질성을 띠고 있으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다양하므로 그들로부터 주민들의 욕구와 봉사사업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열악한 소형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할 때, 지역사회 안의 복지적 요구를 훌륭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소정 (1999), 「개신교 사회복지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영 (1989),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복 (1972),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서울 : 한영문화사.
- 곽효문 (1995), 「복지정책론」, 서울 : 제일법규.
- 권육상 (199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학문사.
- 권혁봉 (1982), 「조직신학강론」,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김기원 (1995), 「교회의 사회적 기능」,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도서출판 예안.
- _____ (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 김남웅 (1999),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준 (1985),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학회.
- 김동배 (1993), 「기독교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 사회복지 연구, 제1권」 서울 : 연세대학교
- 김만두 (1982), 「현대사회복지총론」, 서울 : 홍익제.
- _____ (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김명혁 (1998),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 규장문화사.
- 김양선 (1971),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 기독교문사.

- 김영모 (1978),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경문사.
- 김용일·조홍식·김연옥 공저 (2000),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 출판.
- 김장대 (1998),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 도서출판 진흥.
- 김재형 (1999),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철 (1994), 「신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교회사회봉사 총람」,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 나지희 (1999), 「기독교 사회복지와 선교」,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준 (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 민영사
- _____ (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 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부 (2000),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서울 : 총회 사회부
- _____ (2000), 「사회복지대회:예장 사회복지의 회고와 전망」, 서울 : 총회 사회부
- _____ (2001), 「사회봉사주일예배 및 행사자료집」, 서울 : 총회 사회부
- _____ (2002). 「교회와사회」,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회부
- 문화부 (1990),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 문화부.
-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종교현황」,
- 민진홍 (2000),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귀동 (1988),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서울: 혜문사.
- 박근원 (1990), 「오늘의 선교론」, 서울 : 문화부.

- 박노원 (2001), 『서울노회의 역사』,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동현 (1992),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박동현 (1994),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 박병구 (2000),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봉 (2000),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1989), 『기독교와 사회사업』,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요일 (1987), 『출애굽기 강해』, 서울 : 크리스찬서적.
- 박원진 (1999), 『한국기독교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식 · 윤영선(2001), 『현대통계학』, 서울: 다산출판사.
- 박정신 (1989), 『한국개신교 성장에 대한 역사적 설명시도』, 『기독교사상 4월호』
- 박종삼 (1987), 『한국의 개신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 _____ (1992),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이삼열 엮음,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박창근 (1999), 『성서 및 교회사에 나타난 사회복지이념과 실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병일 (2000),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석 (2000),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석 (1987),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 성규탁·김동배·은준관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 대학교 신학대학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 손봉호 (1989),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나비사.
- 손인웅 (1994), 『지역사회를 통한 교회의 활성화』, 『교회사회봉사총람』
pp. 296-303, 서울: 장로회출판사
- 송낙원 (1975), 『기독교회사』, 서울: 공방원각.
- 신광섭 (1994), 『한국 기독교의 복지사적 고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신인현 (1982),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 서울: 현대신서.
- 안병진 (1977), 『민족통일과 사회복지』, 서울: 고려출판사.
- 엄지선 (2000), 『기독교 사회복지사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아
동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봉근 (2000), 『교회지도자의 사회복지활동경험과 의식조사연구』, 강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호 (2000), 『교회가 지역사회에 끼쳐야할 바람직한 방향연구』, 한세대
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의웅 (1994),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유장춘 (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계탁 (1997),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 나남출판.
- 이만식 (2000), 『교회의 사회 봉사: 그 실태와 대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사회부.
- 이삼열 (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

울 :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 이성희 (1997),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이소희 · 정민자 · 김경희 등 공저 (2001),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 양서원.
- 이승렬 (2001), 「교회사회복지론 : 위상과 실천과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편, 『총회사회부 정책협의회 및 사회선교 지도자 훈련』, 서울 : 총회사회부
- 이원규 (1994),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사회봉사 총람』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 _____ (1994),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기독교문사.
- 이인수 (2000), 『21세기 실버산업과 노후생활』, 서울: 도서출판양지.
- 임종운 (1999),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자원봉사인력개발연구원 (1990),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 장금석 (2001),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1987),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 장종녀 (1998),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일영 (1999), 「미래지향적인 교회건축」,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호진 (1995),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 정길홍 (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정지웅 외 (1995),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 조미숙·이윤로·윤희미 공저 (1999), 「가정폭력과 사회복지」, 서울 : 학지사.
- 조홍식 (1995), 「가족문제와 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도서출판 예안.
- _____ (2001), 「지역사회복지와 교회건물 개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교회의 사회복지 :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주정일·이소희 (2001), 「아동복지학」, 서울 : 교문사.
- 지 윤 (1970), 「사회사업가」, 서울 : 정신사.
- 최규식 (1999),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무열 (1995), 「한국장로교 목회자의 사회참여 및 사회복지적 관심에 관한 연구조사」, 「신학과 세계」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 _____ (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 최성찬 (1979), 「기독교윤리개설」,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 최순남 (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홍익제.
- 최일섭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일섭·류진석 (199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기독교사회 편 (1991),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서울 : 기독교문사.
- 한국기독교장로회(1995), 「희년정책자료집」, 한국기독교장로회 출판사,
- _____ (2001), 「제86회 총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장로회 출판사.
-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종교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한귀근 (1984),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대

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준-갤럽조사보고서, 「빛과 소금」 98년 11월호, pp.22-37

한미준-한국갤럽 (1999), 「한구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황인준 (2000), 「한국교회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사업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복 (1999), 「교회시설의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건축방향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수 (1999),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국외 문헌>

Wright, Christopher, (1983), *Living as the people of God*, (England : Intervarsity Press).

Rescher, N. (1970), *Welfare*, (University of Pittsnurh Press).

Sider, Ronald J.(1990), *Rich Christians in an Age Hunger*, (Londen : Hodder and Stoughton).

Parin, Vakharia, (196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번역본>

Handricks, H./ (1984), 정한교 역, 「성서와 사회정의」, 분도출판사.

John, H/ 성암 역(1980).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분도출판사.

John R W / 박영호 역(1985).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Leslie J. / 나요섭 역(1992), 「성서에 나타난 가난」, 서울: 나눔사

Moltmamnn, J/ 광숙희 역(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Activation of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by Korean Churches

Park, Won Jae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social welfare is a comprehensive system designed to ensure all people's rights of dignity and humane lif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behavior practicing such a system in a professional way. After all,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ial welfare involves a campaign to recover the humanity conceived by Creator's ideology, which implies that our churches are obliged to realize God's ideal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es and men. In particular, the social welfare may well be traced back to the basic ideology of the church organization or the Bible, and in this context, the Christian welfare services are inevitably correlated with the churches.

With such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social welfare thoughts described in the Bible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main mission of church, and thereupon,

examining the conditions of churches'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addressing the problems thereof to recover the identity of the church organization and urge them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To this end, preceding studies were reviewed,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ur Korean churches are engaged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any way, and that they are involved most in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and that they w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 The goal of churches' social welfare activities is to practice Christ's teaching "Love thy neighbors" and thereby, preach God's words as their primary objective.

The people who are most influential in churches' social welfare programs are the ministers, and therefore, it is deemed essential to awaken the ministers of the social welfare programs by expanding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programs for them. On the other h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commit the social welfare specialists to churches' social welfare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nisters are less committed to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Although they are less awakened of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those ministers who are more awakened of the activities tend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In this regar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introduce some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to awaken the minister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is vein, it is deemed

essential to include the social welfare in the curriculum of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r in the program of practical ministration so that student ministers may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ond, church resources are not efficiently used. Although our churches possess a variet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y are not using them efficiently enough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ir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The result may be a great waste of the social welfare resource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required to design an integrated social welfare action programs, overhaul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reby, increase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programs, while exploring the ways to maximize the use of churches' social welfare resources and deploy the human resources in a more efficient way.

Third, we need to design more diverse social welfare programs. Since the current programs focus primarily on children's welfare and philanthropic or charitable welf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m into wider and preventive social welfare programs which may cover juvenile guidance, daycare and hospice services for the elderly, handicapped people's welfare, community programs meeting people's needs, etc.

Fourth, churches are too much individualized, while becoming smaller. Moreover, our churches tend to be engaged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without any systematic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thereby, develop our churches' social welfare

programs,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erlink their programs within a community, while improving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and restructuring the community services. Then, church-centered welfare programs may well be replaced by community-centered ones.

In conclusion, our churches are engaged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not due to some historical demands or conditions but due to their mission or "Love thy neighbors". Still today, Jesus tells us, "...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atthew 20:28).

Now is the time when our churches should use various social welfare techniques based on such a welfare thought of the Bible, and as healthy churches armed with belief and practice, should be more actively engaged i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